朝鮮日報 夕刊

社說 寺刹의 凡俗化

一

佛敎가 過去、人類歷史에 잇서서 文化上으로 偉大한 貢獻이 잇슨것은 이에 贅言을 不要하는바이다。 或은 大慈大悲를 論하야 一切 衆生의 濟度를 主張하고、或은 梵行無常을 說하야 사람의 歸依할바를 指示하얏다 佛敎의 本旨에 依하면 人類에는 民族間의 差別도 업고、貧富貴賤의 階級도 업고、오즉 平等이오、博愛인 精神만이 人類를 支配할것인데 後사람이 그 本意를 體得치 못하고 오즉 制度에 얼매어 或은 佛像을 偶像視하며 或은 人類에 差異制度를 創造하얏다。 그것으로보면 佛敎는 制度를 革正할 必要가 잇슬지언정 一部에서 論하는것과가티 佛敎 그自體가 排斥할 性質의 것이 아니다。

二

朝鮮도 三國時代에 漢土로부터 佛敎가 輸入된 以來 或은 新羅에、或은 百濟에 傳播하야 各各 燦然한 文化를 建設하고、高麗時代에까지 傳承되어 朝鮮에 獨特한 文化를 集成하얏다。 그런데 高麗末葉으로부터 漸次 腐敗하기 始作한 佛敎는 或은 王政에 干涉하며 或은 宮廷에 潛入하야 온갓 惡弊를 남겻스니 李朝에 이르러 그의 排佛政策과 아울러 그 殘骸를 오즉 深山窮谷에서 볼수잇게되것은 偶然한 事實이 아니다。 日韓倂合 以後로 寺刹令이 發布되어 傳法、布敎의 自由가 認定되어 己未前後하야는 都市에 까지 그布敎所를 두게되고 學校를 設立하며 이에 歸依하는者 한참 增加하야 佛敎를 다시 復興할듯이 보이더니 다시 今日과가티 頹廢의 傾向에 잇는것은 寒心할일이다。

三

보라。 佛敎는 그 寺刹이 本山만 三十一、末寺까지 合하야 一千三百四十四個所、僧五千七百 尼 一千八十 그所有財産은 未詳하되 年收入 百萬圓以上이라 算定한 勢力이다。 그러나 이러한 大基盤을 가지고도 社會的 或은 敎化的 活動은 微微하기 짝이업으니 社會的 活動은 暫成高僧한개를 養成함에 오히려 氣息이 奄奄한 形便이며、敎化事業으로는 百餘布敎所가 잇스나 그 成績은 世上이 認識치못할만큼 萎靡不振하다。 먼곳은 且置하고 가까운 京城郊外의 寺刹만 보드래도 敎化事業에 盡力하는지 僧尼의 利己的 營利에 餘念이 업는지를 足히 알수잇다。 況然監이 俗男俗女의 會集所가 되는感이 잇는 近日의 京城近郊의 寺刹임에랴。 吾人도 勿論都市近郊寺刹의 風紀問題를 가지고 佛敎乃至 寺刹全體를 論하라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寺刹이라는 名稱이 잇는以上 佛敎를 爲하야 뜻잇는 人士의 생각할 問題가 아니랴。

四

佛敎 乃至 寺刹이 이가티 墮落한 原因에 잇서서는 時代的 思想關係도 잇겟지만 佛敎界에 偉大한 覺醒者가 적은때문인가 한다。 萬一 佛敎界에 大悟徹底한 大覺者가 잇거나 大學者는 且置하고 佛敎의 革正에 寢食을 忘할 敎徒가 만키만하엿든 住持의 ■■戰이 잇슬理업고、社會事業、敎化事業에 盡力할 理업스며、寺刹이 花柳巷으로 化할理 업슬것이다。 果然 佛敎는 一部에서 排斥하는것과가티 ■

外蒙古赤化次로 蘇聯서重大指令

軍事施設援助、資源開發과 鐵道와、航空路開設援助等

【滿洲里三日發電通】三日當地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莫斯科政府는 最近 習多의 자바이칼軍司令部에 對하야 外蒙古의 赤化에 對하야 左의 重要한 指令을 發하엿다

一、蘇聯政府는 外蒙의 軍備強化와 軍事的性質을 有한諸施設을 援助할것

二、蘇聯政府는 外蒙의 資源開發에 共同할것 그것을 爲하야 習多、庫倫間에 四百키로의 鐵道敷設에 着手하는 同時에 目下 工事中인 월르네우친스크、庫倫間의 鐵道完成을 促進하고 ㄷ同鐵道의複線工事를 할것

三、習多、바이칼國境間에 定期航空路를 開設하고 이에 政府는 飛行機 二十機를 提供할것

四、政府는 外蒙政府에對하야一千萬留의 借款에 應할 用意를 가젓다。

民의 ■■이 되고 말것이냐、一■ 路計의 ■■이 되고 말것이냐、佛敎徒여! 光明한 世界를 다시 ■■■■■■ 하나 佛敎 本來의 大使命을 ■■■는가。

日本、羅馬法王廳間 外交使節交換은誤傳

【電通東京電話】羅馬法王廳과日本間의 外交使節交換件에 對해서는 杉村駐伊大使와 法王廳國務次官 피살드師와의 사이에 交涉을 行한 結果、近近 正式으로 外交使節을 交換하기로 決定하엿다는 말이 傳하고잇는데 外務當局은 現在까지 右와如한 訓令을 發한 事實이업다고 使節交換說을 正式으로 否定하엿다 卽 羅馬法王廳間의 外交使節交換은 一九二二年日本側으로부터 提議한것인데 當時佛敎、神道各方面에서 強硬한 反對論이 起하야 드되어 中止되엿고 그後交涉을 行한 事實은 업다

프랑당佛首相 經過良好

【巴里五日發聯合】自働車衝突의 奇禍를 맛난 프랑당首相의 그後 經過는 자못 良好하야 五日 오라베르로부터 巴里에 歸還하엿는데 七日 國務會議에는 出席하게될 모양이다

英皇帝御祝典에 御祝電御發送

【東京電話聯合】天皇陛下께서는 大日英國皇帝陛下即位二十五年祝典御擧行에 對하야 親히 祝電을 發하시엇고 그리고 秩父高松兩宮殿下께서도 祝電을 發送하시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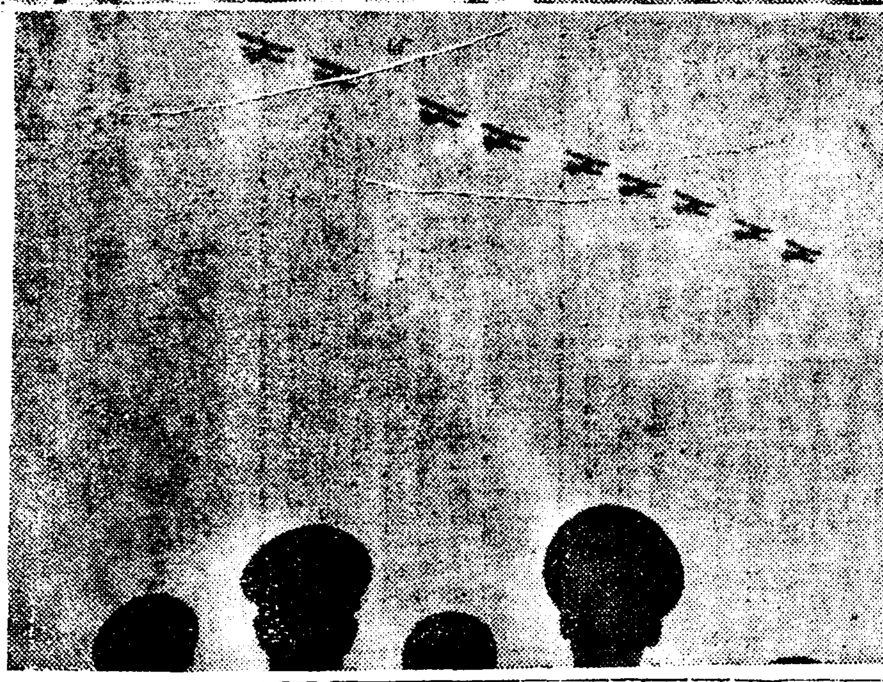
蘇聯三五年度 春季播種良好

面積은比昨年千四萬헥터增大 個人農에서共營農으로

【莫斯科五日發聯合】一九三五年度春季穀物播種은 蘇聯邦全土에 亘하야 成績이 極히 良好하야 四月三十日까지에 播種을 完了하엿다 面積은 五千萬헥터로 昨年同期에 比하야 一千四百萬헥터가 增大되엿다 春季播種을機會로 多數의個人農이 共營農業에 參加하야 現在 豫定期日前에 播種을 完了한 北코카스地方에서는 五萬人의 個人農이 共營農業에 參加하엿다

審議會開店多少遲延

【東京電話聯合】政府는 八日의 樞府本會議에서 內閣審議會關係勅令이 可決되을기다려 調査局長官 其他의 人事를 決定하야 十日의 閣議에 付하야 官制와 함께 發表할 豫定인데 內閣調查局長官에 對한 銓衡이 만대로 進捗되지안키때문에 十日의 閣議에서 決定하기는 困難하다 따라서 審議會의 開店은 多少 遲延될 模樣이다



英國을威脅하는獨逸軍備

(上)은 一九一四年英國을威脅하던 獨逸海軍이오 (下)는 一九三五年英國을威脅하는 獨逸空軍이다

蘇聯의新公債 三十五億루블 半數八分、半數無利子

【電話莫斯科四日發】蘇聯政府의 中央執行委員會와 人民委員會에서는 今日第二次五個年計劃의 第三年의財政에 充當키爲하야새로 期限十個年總額三十五億留의 政府公債發行을 命하엿는데 右中 半數는八分利 他의 半數는無利子이다 但將來抽籤으로하기며決定하

라발佛國外相의 第二段外交工作

佛蘇援助條約成立을機會로 莫斯科와쏘우訪問

【巴里五日發聯合】蘇聯政府와의 사이에 相互援助條約締結을 完了한 라발外相은 來九日 巴里를 出發하야 왈소우、莫斯科를 訪問하고 第二段의 外交工作에 着手키로되엿는데 右外交工作의 重要性에 鑑하야 外務當으로부터 레지에事務總長이 隨行할터이다 그리고 佛國政府는 七日 엘리제宮에서 르브랑大統領 司會下에 國民會議를 開催하고 蘇聯、波蘭兩國外交交涉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기로 決定하엿다

白色테로續出로 中、言論界暗雲低迷

政府의言論單一化强化政策과 孔祥熙氏의暗中飛躍

【上海四日發電】上海言論界의 重鎭 時事新報、大晩報、차이나·프레스、申時電信社 四社의 社長이던 張竹平氏는 數日前 病을 理由로 辭任하고 後任에는 上海靑幇의 巨頭 杜月笙氏가 就任하야 一般을 驚愕케하고잇는 이때에 또다시 三日 天津에서 胡思溥、白逾桓兩氏가 白色테로 때문에 暗殺되어 中國言論界에 大衝動을與하게 되엿다。 張竹平氏의 辭任한 眞相은 藍衣社의 脅迫에 依한것으로 後任은表面 杜月笙氏가 就任하엿스나 財政部長 孔祥熙氏가 四社를買收하야 全혀 政府에 依한 言論의 統制를 企圖하고잇는 모양으로 이外에 上海의 大新聞申報、新聞報等의 中立을 標榜하고잇던 方面에도 漸次 此種의 손이 빼치고잇서서 全혀 中國全國의 新聞通信을 政府御用의 一色에 塗抹하려고하고잇다。 저번 申報社長 史量才氏의 暗殺事件等도 아직 犯人이 檢擧되지아니하엿는데 이政策의 第一步의 表現이엿다고한다。 이가티하야 政府의 言論單一化强化의 進捗은 各方面에서 非常히 注目하고잇다

004244

『歐洲戰爭勃發說 懆急한速斷이다』

巴里『르·탕』紙極東特派員듀氏 滿洲視察途中에入京

英國의 倫敦타임스、米國의 紐育타임스와함께 世界에서가장權威잇는新聞의하나인 佛國巴里의 大新聞『르·탕』(Letamps)通信員『르·탕』의 極東特派員、듀보스크(M·Dubosqe)氏가 東京으로부터 滿洲視察에 向하는길에 再昨日夜 서울에들녀 朝鮮의 文物을 視察하려고、朝鮮호텔에 投宿하얏다。 듀보스크氏는 往訪한記者와 다음과가튼 問答이잇섯다

(記者) 무슨目的으로 東洋에 왓스며 언제와섯는가?

(듀) 나는『랑』의 倫敦記者로서 極東問題에 趣味를 가지고잇다。 北美를 經由하야 極東情勢를 視察하는것이 目的이며、二月上旬에 東京에 到着하야 日本의朝野各界人物과 意思를交換하얏다。

(記者) 昨年이때의 歐洲各國諸新聞은 極東問題를中心으로 緊張한情報에 注目을 集中하야 어떤新聞은 당장무슨事端이 勃發할것가튼 뉴―스와 論評을 發하얏는데、이제는 反對로 極東諸新聞의 政治外報面은 歐洲의 急迫한듯한 情勢記事로 한몫을 보게되여가는셈인가?

(듀) 獨逸再軍備는 英佛伊의 「콤뮤니케」따위紙上阻止를 嘲笑한과가치 一方的으로 進行되는것이 事實이라면、베르사이유體制를 中心으로하야 利害가 너머나 相反한獨佛兩國의 衝突의 可能性은 그前보다 增長된것은 否認치못할것이 아닐가?

(듀) 懆急한判斷이다。 獨逸이 그러케버리는理由는 平和主義의 現佛國政治家들은 大戰의慘禍가 아즉사러지지안은 今日戰爭에訴함과가튼 積極手段은 取치안하리라는것과 또는英國이 中間에서 엇더케 斡旋하야주리라는 希望으로 發惡하여보는것이다 버티면버틸사록 外交上折衝는 有利하게되는것이 國際外交에 慣例가되는것과가튼 惡傾向은 獨逸의 最近過去事實로써 例示되는일이나、베르사유條約一部의 一方的廢棄는 그絶頂임으로 압흐로는 그 外交折衝에는 오즉 讓步의길이 나머잇슬뿐이다 그러나 나치스獨逸의 最近外交는、모도가 失敗이다。 獨逸은 實力으로 只今보담 몃倍나나흔 過去大戰前에 잇서서도 外交에 失敗하야 結局、戰爭의結果는 거의 破滅狀態로誘導한것은 周知하는바이니、只今 그런코―스대로만 나갈수는업슬것이다。

(記者) 佛國이 貿易上損失에 不拘하고 金뿔락을 固持하고 또 是非레金政策을 取하야 貨金業者의 政界勢力을 反映하는 事實이아닌가?

(듀) 반드시 그러치안타。 元來金本位를 放棄하는것은 健全한世界經濟의 邪道이다。 迂回曲折을 겪드래도 金本位는 貨幣制度의 不動의基礎가되여 無視되지못할것이다、佛國은 金貯藏이 佛國의 金本位를 維持함에 넉넉함으로 오즉 金本位의 正統의길을 갈뿐이다

(記者) 民主主義의 牙城으로 自處하는 佛國이 畸形的인 擧國一致的形態의 內閣으로 繼續되는것은 政黨政治의 抛棄가 아닌가? 라발外交는 바르투外交의 純然한 繼承인가?

(듀) 그러나 佛國의 國民內閣은 팟시즘의 壓迫에 依한것은 아니오 多數黨인 急進社會黨의 讓步에 依한것이다、라발氏의 外交政策은 바르투氏의 코―스를 갈뿐아니라 그보담도 堅實하다고할수잇다。

(記者) 貴下를特派한『르·탕』紙는 主로 政府方面의 意見을 反映식힌다는 評은 正確한가

(듀) 佛國에는 政府機關紙라는것은 事實上업다。 오즉 우리『르·탕』紙와『루·마·탕』紙는 政府方面의 外交關係其他를 가장迅速히 또正確히 事實대로 報道하고 또讀者가 商工業者보담도 政治家智識階級이 主임으로 그런觀測을 밧게되다。 佛國의 新聞은『악숑·푸란세스』나『유마니테』等 極右極左것만 除해노흐면 大體로 自由로운立場에잇다고볼수잇다。

그다음 여러가지 雜談이잇슨後 極東問題에 對한 端的見解를 무럿든바 그는 充分히 視察한後에 漸次로『르·탕』紙에 發表할터이라고하고 再會를 約하야 갈니엿다 同氏는 七日午後三時半車로 北行하야 滿洲國을 視察하야 佛國資本의 投下可能性其他情勢를 視察한後 經■다시 이곳에 들러 數日滯在할豫定이다

(寫眞은듀보스크氏)

一事一言 長白山人

어린이의것

五月 첫 日曜日은 어린이날이라는 생각은 朝鮮에도 퍼지게 되엇다。 그리고 朝鮮에잇는 어린이의것으로는 少年軍、■■의 ■■치못한 兒童公園、開城의 少年刑務所、各大病院의 小兒科、다음에는 ■兒院等■、公州의■兒所等。

少年이라면 法律上 十八歲以下의 男女를 ■하거니와 이、■■를 ■■때로부터 思春期까지의 期間이 保健上으로 보거나 敎育上으로 보거나 가장重大한 時期요 危險한 時期인것은 말할것도업다。 善惡의 習慣도 이時期에 形成되고 社會와 人生에 對한 基本的正解와 誤解도、肉體의 健不健도 대개 이時期에 判定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各國에서는 國家的으로는 各種少年法을 制定하고 社會로서는 少年團、少年遊園、少年館、少年文學、少年指導者의 養成等에 注意함이 깁다。 그中에도 少年團은 少年의 社會的訓練에 가장 큰 效果를 生하는 것이라 하야 各國이 다 만흔 金力과 精力을 쓰고잇다。

少年團은 대개 보이스카우트 即 少年軍의 方法에 依倣하야 規律、社會奉仕等 國際的으로 共通되는 精神을 基調로 하는 外에 各國마다 제 國民의 特殊한 精神、(例하면 日本에서는 武士道)을 加味하야 實社會에서 實行的으로 訓練하는 少年訓育法으로서 小學에서 中學에 亘한 十餘年間의 少年敎育의 最重最長한 時期를 擔當하는것이다。

■■■■■ 少年■■ 團과 ■가 잇섯스나 첫재로는 社會에서 이 精神을 잘 理解하지못하야 加入者와 돈내는이가 적고 또 ■■한 指導者도 엇기어려운까닭에 ■■不■한 狀態에 잇섯거니와 지금도 少年을 爲한 施設을 하려거든 이 少年團을 擴張함이 고작일것이다。 그밧게 少年遊園、少年館、少年文學가튼것도 社會有力者의 돈과 힘의 援助가아니고는 아니될것들이다。 이제는 朝鮮도 少年訓育事業을 爲하야 몃萬、몃十萬圓의 돈을 내일 사람도 생길 때다。

유國總選擧에 與黨絶對多數

【벨그라드五日發聯合】去二月六日에 解散된 國民議會의 總選擧는 五日 유고슬라비아全國에 亘하야 擧行하엿는데 與黨유고슬라비아國民黨은 議席二百六十中二百의 絶對多數를 占하게되엿다 國民議會는 來六月三日에 開會할豫定이다 따라서 議會의 開院은 不遠할 模樣이다

漁業條約改正 蘇聯近近回答約束

太田大使리氏訪問時

【東京電話聯合】六日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太田駐蘇大使는 四日 外務人民委員長 리트비노프氏와 會見하고 압서 酒田參事官으로부터 카즈롭스키氏에 對하야 現行漁業條約의 改正에 關하야 日本政府의 方針을 述한後 改訂을 要請한데 對하야 아직 回答에 接지못하엿스므로 蘇聯側은 如何히 생각하고잇는가를 質問한데 對하야 리트비노프氏는 過般來 歐洲問題때문에 遲延되엇다 近近 어떠한 回答을 하겟다는 言을 答하엿는데 日、滿、蘇國境問題 其他의 重要懸案에 對해서는 意見을 交換하지안코 次回에 保留하엿다

高文憲法學科 擔任委員決定

【電通東京電話】政府가 今年度高等試驗의 憲法學科 擔任委員을 如何한 銓衡方針을 取할는지는 機關說問題에 關聯하야 時節이 時節이라 極히 注目되어잇는데 受驗出願期日도 今月二十五日로서 끗마치게되는 關係上 受驗者의 立場도 考慮하야 可及的 그以前에 決定할 方針으로 過般來 인서 協議를 進行하고이던바 行政及

長江流域一帶에 英勢力益益扶植

【大阪電話聯合】漢口發 六日貿易局 大阪出張所入報에 依하면 英國은 長江流域一帶의 勢力을 復活시키려고 粵漢鐵道에의投資와 廣西省産의 항그스텐의 一手買占 湖南省의 안티모니獨占을 期하고 各各 折衝을 繼續하야 안티모니는 約九割의 買收를 豫約하엿다고 하는데 또 四川省의 石炭採掘權全部를 英國아폴드商會에 賦與하엿다는 報道가잇서 各國을 注目케하고잇다 四川省의 石炭埋藏量은 九十八億七千萬噸으로 民國二十一年의 産額은 七千萬噸이엇다

審議會工作은 最高段階에進展

【電通東京電話】政府는 五日岡田首相의 西園寺公訪問으로서 內閣審議會 組織工作의 實質的展開를 보고 同時에 八日의 樞密院本會議에서 審議會官制의 御諮詢案이 正式 御下渡되므로 九日頃에 利用하야 이兩三日中에 內閣調查局長官의 人選을 終了하는 同時에 岡田首相은 鈴木政友、町田民政兩總裁를 訪問하고 審議會委員銓衡을 드되어 表面化하야 審議會 組織工作의 最高段階에 入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委員의 人選이 急速히 되는때에는 政府로서는 可及的 十日의 定例閣議에 岡田首相으로부터 全閣僚의 贊成을 求하야 即日 審議會及 調查局官制를 公布하는 同時에 可及的速히 審議會全委員及 調查局關係官의 初會合을 行하려고 準備를 進行할 方針이다

발칸協約諸國 勃國軍備對策協議

勃國再軍備許容時에土國다다넬스海峽軍備主張이豫想되므로 會議서一波瀾難免?

【부카레스트五日發聯合】발칸協約國政府는 來十日、부카레스트에서 會商을 遂하고 勃牙利政府의 再軍備要求에 對한 對策을 協議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발칸協約 各國政府는 어데까지 勃牙利政府의 再軍備에 反對하야 獨逸政府가 局地安全保障協約에 加入할 境遇에는 再軍備를 容認한다는 立場을 堅持하리라고 觀測되는데 一方土耳其代表는 會議席上에서 海峽制度에 關한 條約 第四條以下의 廢棄、다다넬스 軍備制限廢棄를 主張하리라고 豫想되므로 會議는 一波瀾을 免치못하리라고 豫想되다

할하事件으로 滿洲蒙古間交涉 今月十日頃開始

【電通東京電話】南駐滿全權大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公電에 依하면 할하事件의 善後處措에 關한 滿蒙交涉地點에 對해서는 滿洲國側에서도 滿洲里에 異議가 업다는 旨를 回答하엿스므로 드되어 來十日頃 交涉을 開始하기로되엇다 今回의 交涉에서는 滿蒙兩國境의 全般的確定을 行하지안코

一、할하廟의 後措處

二、할하廟附近의 國境侵犯事件의 善後措處

三、蒙古와 滿洲國과의 交通連絡問題等을 協議하기로되엇다

어펌提督等招待 海相官邸서日米交歡

【電通東京電話】大角海相은 六日 午後七時부터 官邸에 目下 來國中인 米國亞細亞艦隊 어펌提督以下 幹部를 招待하고 歡談을 交하고 日米海軍의 親善을 보이고 午後九時 散會하엿다

人事·集會

◆宇垣總督은 夫人同伴으로 六日午前十時六十分 京城發溫陽溫泉으로向하야 三、四日間靜養할豫定

◆鶴泰一氏(前東亞日報經理部長) 辭任人事次來社

◆黃德純氏(朝鮮新聞社參事) 新任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六日

◆大阪短期 氣配◆

大新 九三三〇 (二〇低)
鐘新 二二五〇〇 (不變)
日産 九四〇〇 (三〇低)
東新 一四六八〇 (二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〇二〇〇 先限 五九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九〇 先限 六〇六〇

一等賞受領
第九回 全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 廣告意匠競技에 一等賞을 受領하얏사기 紙上으로 謹謝하나이다
京城禮智洞 天一靈神丸 超靑藥本舖 天一藥房

二等賞受領
第九回 全京城商工聯合會大運動會 廣告意匠競技에 二等賞을受領하얏삽기 紙上으로 謹謝하나이다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四 電光二〇三九 萬花堂 主 金墢元

三等賞受領
第九回 全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 意匠競技에 三等賞을受領하얏삽기 紙上으로 謹謝하나이다
京城鐘路三丁目 電光二一八番 德世洋行

漢洋 慶南統營邑吉野町 入院室完備 眼科專門 眼醫 李光鎬

株式會社 漢城銀行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光化門七一六〇番 振替口座京城一一〇五番
支店及出張所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川、大田、永同、大邱、釜山、開城、延安、平壤大和町)

말더듬이
一重難한訥言도全治함 一矯正案內書無料送呈一
京城府製花洞一〇四ノ三 訥言專門矯正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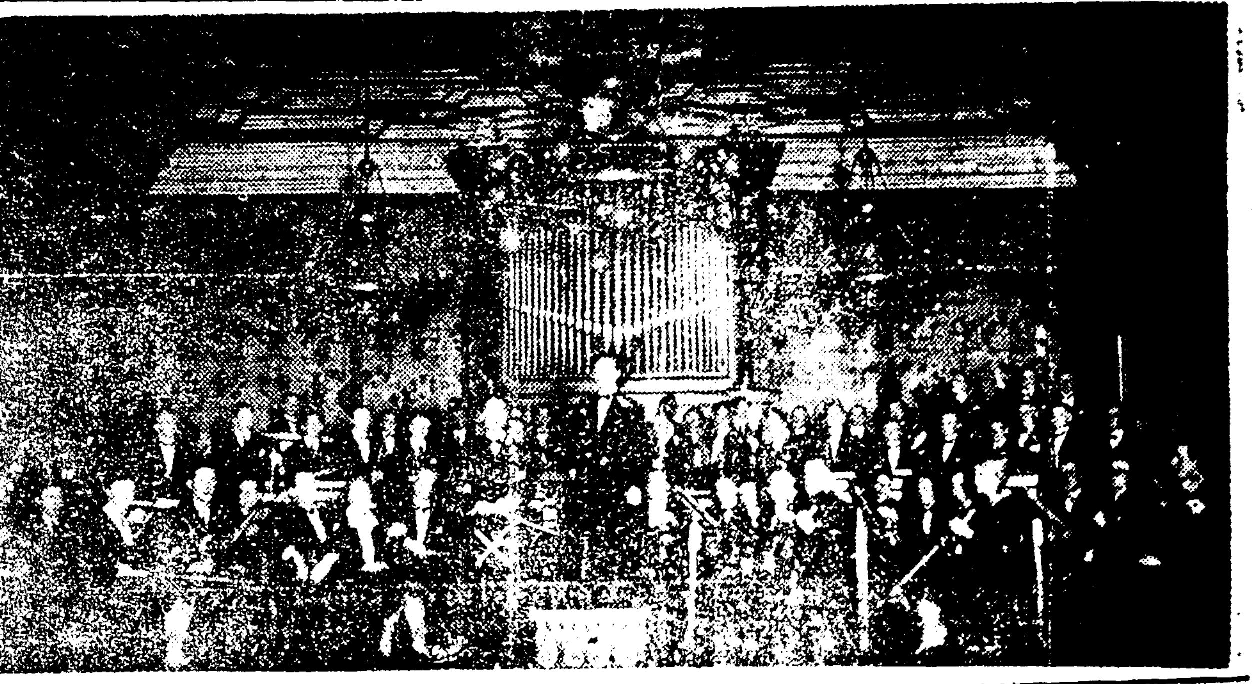
五月五日낫부터 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大都社新作映畫 軍事活劇 倉本大尉 全五卷 監督…田中重雄氏 主演…東大寺一郎氏
◇유니버살社特作映畫 名畫 당신을爲해서 生命도밧치리 全七卷 主演…노만케리氏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얼간망둥이 全八卷 監督…레오맛케리氏 主演…맑쓰四兄弟
府內鍾路 桃花劇場 電話 光二一三

便所惡臭除去 特許 イヅミ芳香油
惡臭을除去하고 芳香을發散함 目下景品附賣出中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五月十三日(第二部中組)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學則要二錢切手 校舍大擴張敷地六百有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마음대로運動하게됨
京城黃金町六ノ二二三(電本二一六〇)

自宅獨習 一個年에中學卒業
立身第一步는 卒業빨으고 어데보다도 會費가싸며 어데보다도 알기쉽다
日本第一
本校卒業生은 事業에從事하면서 朝夕의自宅獨習으로 第一빨리卒業이되는 本校의中學講義錄을 工夫하라
●只今은昭和十年度新學期開始入會할絶好期●
中學卒業者에게 見本無代進呈
東京牛込台町 大日本通信中學校

Columbia
新民謠 打鈴 打鈴 唄 一心
콜럼비아特約店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電話二三七一番



桂貞植氏獨奏會前記 (一)

東洋人으로最初 獨逸國立音樂校卒業

獨逸政府文部省으로부터 獨奏家免狀을獲得

여러가지 방면으로 우리의 문화가 날로 향상하며 생활의 정신적 양식으로 새로운 음악 예술의 요구가 점차로 민중화하여가고잇서 본가을 씨ㅣ즌마다 새로운음악 더 흥황하고 고상한 음악연주가 크게 기대되고잇는 이때에 저간 십이년이라는 오랜동안 서양음악의 본고향인 구라파에 건너가 독일과 서서에서 바욜린 음악을 주로 연구하여 저땅에서도 이미 연주가로 활동은 계정식씨를 마지하야 오는 십사일밤 시내공회당에서 처음바요린독주회를 개최하게된것은 실로 우리악단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크게 깃분일이다 씨의 독주회를 압두고 씨가 오늘까지 전심하야 근공하여온 자최를 더듬어 그의 인격과 예술의 일단을 음미키로 하련다

씨가 큰음악가가되려는동을 품고 독일에 건너가기는 십삼년전 바로 씨가 십구세되든가을이엇다 일숙이 그고향인 평양에서교회학교에 단니며음악을 갓가히하는동안에 바요린을공부케되여 다시 동경(東京)에건너가 동양(東洋)음악학교를마추엇든 그해이엇다 그때에벌서씨는 우리악단에서 훌륭한연주가로서 크게존경과 긔대를 바덧고 동경에서도 고별독주회를 개최하여 만흔환영을 바덧는마큼그의비범한천품이 빗난지 오래든것이다 그러나아직 예악이란것이 문화과학으로서식자간 에도그리 중요시 되지안튼때라 음악을 공부하려고 멀리 독일까지류학을 간다는것은 여간한구든신념이 업서는결행키힘들엇다 ××요행리해깁흔 가정에 태워나서 우애의 정이깁흔두형님 아뒤를도와마츰내명예의성공할날 을가슴에깁히품고류신되홈어머님은 남기고망망한 인도양을건너지중해로돌아 독일에갓든것이다 사나히의나이십오세이면대장부라고 도하나언어도 거이통치못하며 산수가 생소한 수만리타향에혼자서 길을떠나는것은 백면의서생으로서 결코 평탄한것은아니엇다 그러나음악연구에대한불타는정열은 가젓든 그에게는그다지어려운 일은 안이엇다 ××독일도착후의 『뷰르즈부르히』고공음악학교는독일 삼대 국립음악학교의 하나로 그중에서 가장럭사가 오랜음악학교가 잇든 곳이엇다 그러고요행그곳에는 조선사람으로 바요린을연구 하든김재훈(金載勳)씨가잇서그를 유일한벗으로 차저가게되엿다 독일의 음악 정도란조선이나 일본의정도와비교할수 업슬만큼 고등하리라는것은 미리부터 생각하엿든것이나 별로도그 차이가현격함에씨는거이낙망할만큼고동하엿다는 것이다 독일음악학교졸업정도 가지고는 도저히학교에 입학할자격도 업는형편이엇든것이다 그리하여 어학과한가지로 바요린의개인교수를 밧기를일년동안그간은 거이 미친사람모양으로 공부하기에 여념이업섯다 피연씨의 천품과노력은 보답되여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입학되엿다 한번학교에 입학은하엿스나앞으로 졸업까지에 다시난관은만타 일본가트면 학교졸업까지는안정한 긔간이잇스나 이곳학교는일정한 긔간이업다니되 독주가의 자격이잇다는 교수회와 문부성위원의심사연주에 통과되지안흐면 졸업을 못한다는것이다 그래서속하면륙개년 그러치못하면 칠팔년 십년까지 다니는 학생들도잇다는 것이엇다 이에씨의노력은 그땅의 학생들보다 몃십배더한고심과 노력이 필요하엿든것이다

그후씨는 과연그곳학생보다 몃십배힘써 공부하엿다 팔백여명의학생중단한명의 조선청년으로 일본사람도 중국사람도 업는학교에서 그곳학생들의 특이한 주목을바드면서공부한다는것은 씨개인의명예에 크게관계되는동시에 조선청년이란명예에 더크게 관계되는일이다 잠시도공부를 게울리할수업섯든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졸업까지에도우수한 성적으로 일천구백이십륙년 학교입학한지 륙년되는 녀름 졸업을하게되여 독일문부성에서주는 독주가의 자격증서를밧게된것이다 (계속)

【사진은베를린서열린독주회무대의 계씨×印】

近郊寺刹中心으로 可驚할亂脈風紀

―湯子輩의逃避場이된佛壇의後帳―

警察의斷乎한取締를期待

종교(宗敎)가 사회의인심을 풍화(風化)한다면어데까지든지그신성(神聖)한 전당이요 숭엄한성지인 연유로써일것인데 최근 서울교외에 산재해잇는 각사찰(寺刹)에서는 그신념에서사는 신도(信徒)들은두말할것도업고 신앙 바게잇는 일반인사들까지도 그대로 칭탁을 직히고 잇슬수업는 괴괴한사실이 속출되고잇다 특히 동대문서(東大門署) 관내에는 그런태처 사찰의수가 가장만흥니만치 또한그괴상한사실이 가장빈번히 이러나고 잇는데 이제그내용의 일단을들추워보기로하건대동대문서관내에잇는청량사(淸凉寺)영도사(永導寺) 약사사(藥師寺) 경국사(慶國寺) 등등이 절저절가릴것업시 대개는 지금으로 부터약칠팔년전부터 신설한 사찰임에도불구하고 음식점영업(飮食店營業)의허가를엇게된 그동긔는 아인게안이라 동정할만한 리유가잇섯다 즉 단가(檀家)를만히 갓지도못하고 도괴분재산이 되지도못한 그들사찰의 유지는오즉그사찰의승려들의동양난으로는 지탱을 해갈수업서던것이다 그러나그결과가 오날에잇서서는 오히려신성한 종교를 모독하는불미한도로되엇는현상을 나타내고말엇스니 즉이들절간은 지금에와서는 [illegible]의 노름터가된것은고사하고도혹사기도박단(詐欺賭博團)의 무대가되고 흥은남녀의 열매를 맷는장소로변한것이다 경찰에서 허가한 장소에서 주식을파는것은 당연하다 하겟스나최근에와서는 심지어 물의의주남주녀가본당(本堂)에 까지침입하야성불(聖佛)의 호광에숨어서 추행을감행한은 가타할만한 일로써최근 소관동대문서에서는규칙을버서나서 흥은 손님을숙박식히거나 또는 신성을더럽히는 사실이잇다면 용서엄시단연처치 하려고목하이들 각사찰을 세심주목중인모양이다 이에대하야 동대문서 간부모씨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東大門署 某幹部 談

최근그러한 소문을 곳곳에서들엇습니다 일반인에게서 이에대하야 여론이나는것은 그만큼종교의 신성에대하야 일반인이편심을가진다는 반증으로 대단히 조흔일입니다 각사찰에 음식영업허가를 줄그당시에는 다분히 동정할 여지가잇서서 허가해준 것인데 지금에와서는 그결과가 심상치안케 되엿슴니다 그러나 규측범위를 버서날때에는 물론 용서할 여지가 업슬것입니다. 운운

全朝鮮各鑛山을遍踏巡歷코詐欺

광산사기의『참피온』이라고할수잇는하관시『下關市』니전정칠(尼田正七)『三○』은 륙일경성복심법원에서사기죄로징역삼년판결을바덧다 그의 범죄사실을보면 그는조선에광산열이 팽창한기회를타서 금맥혹은 린맥을매수한다고 빙자하고남의돈을 후려먹을 계획으로소화칠년봄에 조선에건너와서 금해오월부터 시작하야 그이듬해륙월까지 만일년동안에 함경도、경상도、충청도、경기도、평안도、전라도등 가위조선십삼도각처를 거의다 도라 다니면서 광산을가진 사람을 차저보고 자기가광산을 사겟다하며 흥은 매매를 시켜준다하며분석비용(分析費用) 수비용등 명목으로 이십여회에전후이천수백원을사기해먹엇다한다 공주(公州)지방법원에서징역삼년의판결을불복하고공소하엿든바 경성복심법원에서도일심대로판결되다

擴張水源候補地 蠶馬場里가有望

府當局에서湧水量調査終了

明年度부터工事着手

경성부의제삼기 상수도확장계획(第三期上水道擴張計劃)은인구확실만으로 해정구역을 확장한후의 사용할목표로 립안키로 결정하야 지난이월이래로 수원지를 물색하든바요지음에 후보지로는 망나루(廣壯里)와 자마장리(蠶馬場里) 는 현재수원지 … 수질과기타를 조사하얏든바 아즉까지의조사에는 자마장리가 가장 유망하다고한다 이리하야 그곳에 직경이『메ㅣ틀』오십리깁히철『메ㅣ틀』의 철관을묻고용수량(湧水量)의 조사를 하고 수량이충분하면그곳으로 내

경성부수도과에서는한편수원지가 결정되는대로 확장공사에착수코자공비사백만원중의일부를본년도추가예산으로하야국고보조를진행식혀 소화십일년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착수키로하얏다

十三强豪가出陣

中等校俱樂部籠球聯盟戰

來八日午後四時부터開幕 松峴洞實業專修校庭에서

滿都籠球팬의 人氣를오로지한곳에 集中케하는第五回中等校、俱樂部籠球聯盟戰은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運動部後援下에來八日 午後四時부터 市內松峴洞實業專修學校(前普專)코ㅣ트에서열리게 되엿다 同聯盟戰의申請은 昨六日까지 마감하엿는데 이에參加한 團體는 中學部A級에 昨年度 優勝팀中東을筆頭로 養正、徽新、徽文、大東等의錚錚한强豪들로서 戰前의豫想을不許한다 또한俱樂部에는 半島籠球界의 三雄 普專、延專、高麗等이 鼎足之勢를 이루고잇서자못興味明待

◇中學部

【A組】徽新…養正(第一日)徽文 大東、中東(第二日부터)

【B組】京實…培材、中央…青學 一高…未定

◇俱樂部

延專…高麗(十日以後) 普專

◇聯盟戰委員

▲會長 呂運亨 ▲委員長 金圭冕 ▲本部委員 洪性夏 盧東奎 金東轍 文鳳憲 鄭淳宅 李丙學 崔在煥 朴榮鎬 金永述 高鳳梧

▲競技進行委員 金龍九 朴鎭愿 朴鍾傑 鄭福庚 高丙徹 韓相洙 朴永洙 曹東煥 盧正福、吳德淵

▲審判委員 田盛鎭 金振秀 李性求 張權 李惠澤 丁相允 張東旭 安台殷 金化泳 孫彼得 宋基宇 高丙徹 孫福俊 崔瀾夏 李惠逸

▲計時委員 朴鍾傑 金明德 金銀 韓相洙

▲記錄委員 李鍾春 南殷興 李文鎬 朴東洙

聯盟戰觀衆者 에게는 場內整理費로 一般十錢、學生五錢을밧기로되엿스며 參加校應援團五十名以上은 每人三錢式을맛기로되엿다한다

中等校蹴球聯盟戰第一日

難兄難弟의激戰 徽文對普成無勝負

一對一의同點으로

京城市內中等校蹴球聯盟主催의第八回蹴球聯盟戰第一日은 六日午後四時부터 徽文高普球場에서열리엇는데 … 表三十餘健兒들이 入場한後今年當番校徽新校長『코ㅣ스』博士의 開會辭와 昨年度優勝校徽新軍으로부터優勝旗返還이잇슨後 選手一同을代表하야 徽新主將高龍成君의 宣誓로서 式을마치고뒤니어 普成高普對徽文高普戰은 同四時三十分부터 權熙昌氏審判아래徽文킥어프로開戰되엿다 絶好『콘디숀』에祝福바더 兩軍 자못激烈한場面을展開하야 數千應援團으로하여금熱狂케하드니 드듸어一對一의스코어로無勝負로마치엇다 (게임六十分間)

【戰況】開戰十五分까지 普成陣頭에서 混戰하며 一時普成軍守備에만注力하드니 十五分에普成CH吳昌煥君을 向하야『롱샷』한것을CF申原熙『샷트』하니 徽文GK金君 防禦치못하야 普成은쉽게처음을어드니 이로부터게임은 激烈化하야 자못伯仲之勢를보이며 前半은一對零普成리ㅣ드한채타임업되다 後半十分에 徽文의 攻擊陣은普成罫前에突入하야LI金洪東의『골숫』으로一點을회복하니 一對一 … 律律한 熱戰을演하드니 二十五分에 普成LW朴瑄준左翼蹴을利하야 善蹴하니 徽文『골포스트』를스치는危機에處하엿스나 GK의 妙防으로無事 타임업一分을남기고 徽文好機를마젓스나GK善防으로兩軍一對一同點으로마치다

【普成】

	LW	LI	CF	RI	RW	LH	CH	RH	LF	RF	GK
【普成】	朴瑄珍	朱榮濟	申原熙	金鍾烈	鄭紋洪	尹晟老	吳昌煥	全熙睦	玄甲鳳	金容福	池達洙
【徽文】	李圭男	金洪東	金榮濟	張鎭英	李鴻熙	黃永秀	李谷一	朴英煥	趙洼淵	蕃義老	金容武

	【徽文】前後計	【普成】前後計
得點	1 0 1	0 1 1
門蹴	6 6 12	4 5 9
隅蹴	1 0 1	0 1 1
自由	2 1 3	1 0 1

普專主催의 中等蹴球 申請今日限

普成專門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學校A式蹴球大會는 來五月十十一日의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行할터이라는데 參加希望校는今五月七日正午까지 同校에到着하기를바란다고한다

柔道紅白戰 十一日、鍾路青年會

朝鮮柔道有段者會主催의 春季柔道紅白試合은 來十一日(土曜)午後一時半부터鍾路青年會運動室에서擧行할터이라는데 各學校와및各道場勇士들은 多數來參하기를바란다하며 九日까지 鍾路青年會館內 朝鮮柔道有段者會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蹴球審判二人制 英國論議採擇?

蹴球의本宗인 英國에서는 審判을二人制로 하자는說이 擡頭하고잇다 이는從來一人制審判은到底히滿足할수업다는 理由이다 例를든다면 A의陣地에서놀든『볼』이B의陣地에로 攻防의位置가急轉할時에 一人의 審判으로는追隨할수업슴으로 二人制도하면誤審의弊害를 이르키지안흘것이라하야 改良說이 有利함으로 二人制를採擇한다면 朝鮮蹴球界에서도이를 利用할것으로 자못興味잇는問題이다

運動界人事

▲李永善氏(前蹴球選手)이번朝鮮中央日報社 …

耕地開墾과衝突된 農用林設定問題

南朝鮮地方가튼人口稠密處에잇서

農林當局內도一部는反對

총독부에서는 일반세농들로서 텀야를 소유하지못한자에잇서서 영농상비료라든가 시탄가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저 금년부터 새로 전조선적으로 농용림지(農用林地)를 설정키로결정하고 그실시책을 연구중인데 이계획에대하야 인구가 조밀한 남조선지방에서는 실행하기가 자못곤난하다하야 농무계통의 일부에서는 벌서부터 반대의소리가 노파저서 그추이는 자못주목된다 반대하는 리유는 남조선지방들히 전라남도와가티 인구가주밀하고 경지면적이부족한곳에잇서서는 농용림지를설정함은 경지의개간을 방해할뿐더러 인구식량문제에도 저촉된다는것으로 전조선에 일률로농용림지를 실시하기까지는 상당히파란이잇슬것으로보인다

이틀을굶고나서 竊盜질하다被殺

【江陵】 굶주림을면키위하야 남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비명에목숨을 일흔륙십세의 가이업는 애화ㅣ 울진군 평해면월송리(平海面月松里) 장근선(張根善)(六○)은금번사월십륙일에 동군기성면정명리(箕城面正明里) 장용팔(張龍八)의집에든 그동리사는 장부경(張富京)(三二)의유긔(鍮器) 집속에서 면긔한개를 절취하야 가지고도망하는것을 장부경이가 발견하고 곳추격하야 물건을 도로빼아서가지고오는길에 그외삼촌 장추(張秋) 라는사람을만나서그런이야기를 하얏든바 장추는그런 괘심한놈을 엇지하야 그냥노와 주엇는가 주재소에 갓다가 버릇을 가르켜주지안는가고 맹령으로 장부경은 곳다시오든길을 도로켜 장근선을 붓드러가지고 주재소로 가자고하자그는 구지노아달라고 애걸하면서종래로 가지안흠으로 장부경은 손으로그목덜미를 따리는데그로인하야 모인은 뒤통을 일으켜 세시간후에무참하게도 죽고말엇슴으로 장부경은 그곳주재소에체포되어 강릉경찰서에 송치되어왓는데 피해자는 이일이잇기전이틀동안이나 음식을 못먹고배가곱하서참다못하야남의물건에손을대어다가 이런참사를 당한것이라고한다

한것이다

馬車에幼兒觸傷

륙일 오후네시반경에 시내삼판통(三坂通)일백륙십사번지압네거리에서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일백륙십번지 사는 강덕원(姜德元)(二七)이가 끌고가던 마차에어린애가 충돌되여 왼쪽머리에크기가동전한푼 가량의 구녁이뚤려저서즉혈이 랑자하게되며 즉시삼판통등목병원(藤木病院)으로데려가서응급치료중인데 지금가태서는 출혈이 만허서 저윽히념려는되나잘만치료되면 약일주일가량으로 전치되겟다는데 그아해는 삼판통일백륙십번지 리상봉(李○奉)의 장녀 부래(富來)(五)라한다

遭難된五十一名 屍體로續續發見

二名은木片에부터無人島에漂着

仁川海難事件後報

【仁川】 오십일명의행방불명자를 내인 인천해조란사건은 임이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삼일에두명의 시체를발견하고 금륙일까지도 한대부면 해안에서아래두명의시체가발견되엿다

富川郡靈興面伊作里四一五 金春基(三○)

同 金春山의弟 二五七

崔明玉의甥 崔昌山(一六)

그외에덕적도(德積島)의 배귀근(裵貴根)(二○)신상민(申相民)(三二) 두명은 깨여진배조각에 매달리여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부근무인도(無人島)에 표착되여 잇는것을인천서경비선(警備船)백봉환(白鵬丸)이발견하고오일아츰에 구조되엿다는대 그들말에의하면 조란당시에 처참한정경은 이루말할수업스며 대개가다 깨어진 조각에매달리여 떠다니엿슴으로 오날까지 발견되지못한사람들은 전부가죽은것이 확실하다고한다

굴거가는細農數

五段步未滿되는耕地營農者가

全朝鮮에一百三萬三千戶

총독부조사에의하면 이러한현재로경작면적 오단보미만의 세농인이전조선에 일백삼만삼천사백륙십삼호에 사백팔십사만사천칠백칠십오인으로 전조선농가 총호수에대비하면 삼십오퍼센트 사이고 농가총인구에대비하면 삼십칠『퍼센트』에 해당한다 세농은또는 남조선이 제일만허 전남이제일위로서전북(全北)경남북(慶南北)네도에서 총수의반을 점령하고잇다

三少年携金出家

가귀집 금고의 돈을 훔처가지고동무와가티 출가상경한 세소년ㅣ경남진주읍내수정정(晋州邑內水晶町)이십칠번지 배국중(裵國仲)의 장남상욱(相旭)(一七)은 근처 최봉동(崔鳳童)(一七) 장영진(張永鎭)(一七)과 상의하고 집엣 손금고를깨트리고 현금 이백사십원을 훔처가지고지난일일에 세소년이 가치상경하얏슴으로 그들의 부모들은각각수색원을제출하엿다

鐵路의跳入自殺

오일오전여덟시경 경원선 북게에서 서울로 오는렬차가한강통(漢江通) 십륙번지 철도운동장 근처를 지날때에 나히약삼십세가량된 조선녀자가 철로안으로 뛰어들어 자살하엿는데 주소씨명은 알수업스며 지갑에는 현금구십오전이들어섯잇다고한다

本夫燒殺未遂 魔女에重刑

年下姦夫와共謀하고

신병으로 항상신고하는 본부에게 성욕의불만을 느끼고 자기보다나이 십여세나 젊은다른남자와비밀히 정을통하야 드듸여서로떠러질수업게 기픈정이드러서 그간부와공모하고 본부를 태워죽여버리고 본부의 가진재산을 훔처가지고간부와가티 살목적으로 작년사월십일밤중에 잠이 기피드러잇는 남편의 의목에 불을부처다는경기도수원군태장면릉리(水原郡台章面陵里)김모(金某)의안해조정렬(趙貞烈)이라는 마흔여덟살먹은녀자는 방화살인미수죄로경성지방법원에서징역십오년의 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하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징역십이년의 판결을바덧는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상고하엿든바 고등법원에서는 륙일에상고기각(上告棄却)의 판결이나렷다 그리하야 결국 징역십이년으로 확정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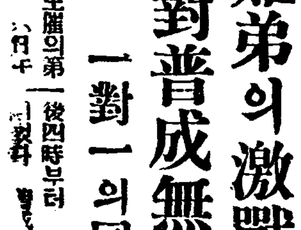
失家兒

경기도련천군삭녕면도연리(漣川郡朔寧面陶淵里)산다는현동운(玄東雲) 이라는열한살먹은소년은 서울구경하려 왓다길을일코 륙일오후팔시 삼십분에의주통(義州通)부근에서 헤매고잇는것을 의주통파출소 순사가발견하고그파출소에보호중이라한다

三年間戀慕타 畢竟은越墻突入

强姦未遂罪로被檢

삼년간이나 연모하든 처녀와결혼을할랴다가 처녀의가정에서 결혼을 허락하지안흠으로 생각다못하야 한꾀를내여 월장을넘어야강간미수한 청년ㅣ시외 신당리홍인동(新堂里興仁洞)구십구번지 박한룡(朴漢龍)(二二)은 삼년간 신당리(新堂里)이백삼십륙번지 김민규(金民奎)의장녀김인진(金仁鎭)(二○)에게 짝사랑을하야오든중에 여의하지못하야 맛침내 지난사월보전두시 김흔밤에 그처녀의집을월장을입하야 강간을꾀하려고 마루밋헤 숨어잇든중에 그집사람에게 발각되야 강간미수죄로 방금동대문서에서취조를밧는중이다


はれやか一服 工夫 이 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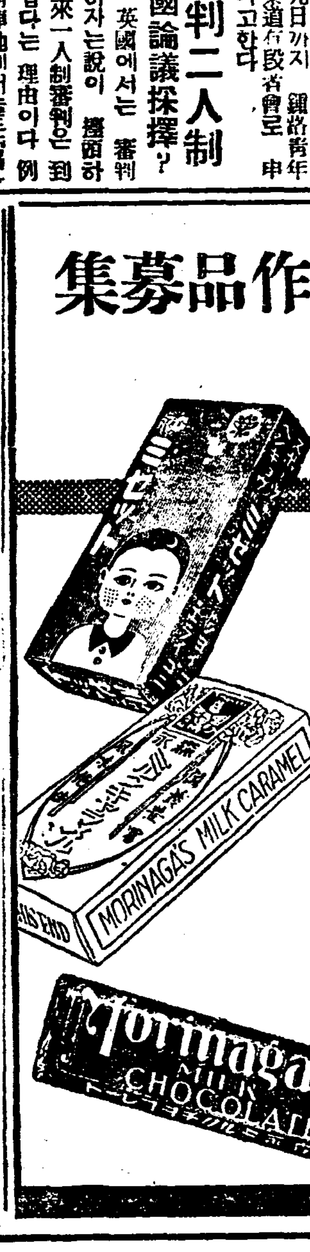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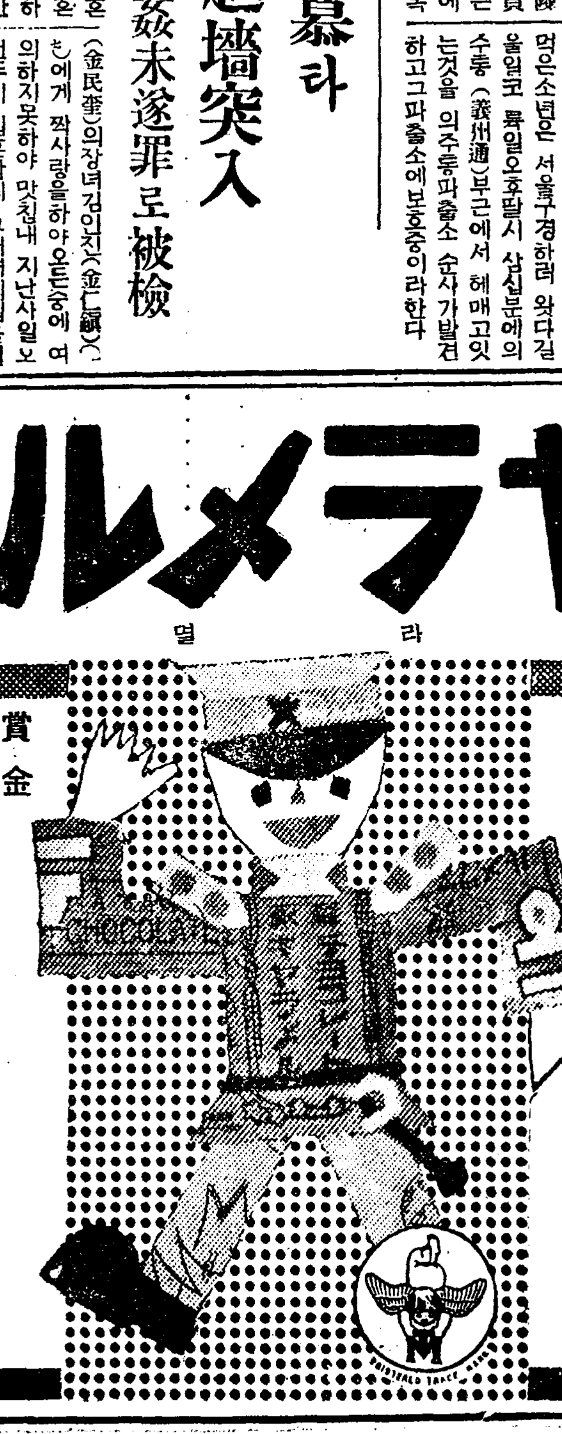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長李貞淑氏는 宿患으로療養中이시든바 四日午後四時에逝去하엿삽기玆에謹告함

追而五月十日午前十時本校校庭에서校葬으로永訣式을行하겟삽나이다

昭和十年五月七日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同 淑女會

第四回 森永キャラメル藝術作品募集 (모리나가캬라멜)

賞金

一般			小·中女學生		
特選	三十円宛	十名	特選	十円宛	二十名
一等	二十円宛	二十名	一等	七円宛	七十名
二等	十円宛	五十名	二等	五円宛	三百名
三等	五円宛	二百名	三等	三円宛	八百名
佳作賞	牌	五千名	佳作	手工用具	二万五千名

顧問 帝國美術院長 正木直彦先生

同 東京美術學校長 和田英作先生

審査員 帝國美術院會員 東京美術學校教授 和田三造先生

同 東京女高師教官 山形寬先生

同 玩具研究家 有坂與太郎先生

同 東京市視學 佐藤平太郞先生

同 東洋幼稚園長 岸邊福雄先生

決心하엿거던 곳製作하라

規定

主要材料 森永キャラメル類包裝材料 森永チョコレート類包裝材料

補助材料 其外의森永製品包裝材料

作品 은平面이던지立體이던지無關하여엇던것이던지着想技巧에 獨創味를表現하여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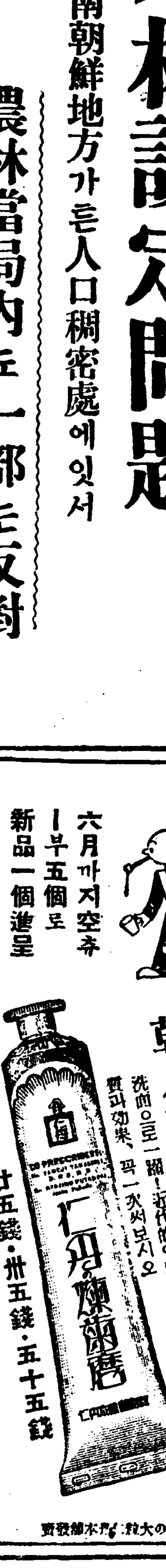
送先 東京市芝、田町一ノ一 森永製菓株式會社學藝部 又는各地學藝部支部에 小學生、中女學生은府道郡學校、學年、姓名을반드시作品의裏面에明記할것

締切 七月三十一日

審査 作品은小學生、中女學生、一般에區別하야審査합니다

發表 十月一日 全國主要新聞紙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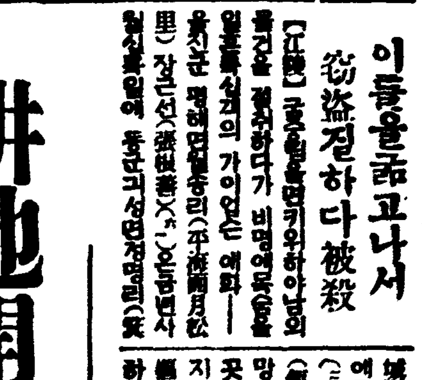
入賞者 三萬一千四百七十名!


朝夕의 仁丹의歯磨

洗面으로一擧!近代的이되는芳香과맛 實效果、꼭一次써보시오

六月까지空츄ㅣ부五個로 新品一個進呈

廿五錢·卅五錢·五十五錢


姜弘植火込한 傑作名曲盤

Columbia 콜럼비아레코드

처녀총각 朝鮮打鈴 먼동이터온다

最高貴藥配劑公開

肺結核 폐결핵 肺炎가다루 폐염 專門家

治病의要訣은 藥을求하실때에 그內容을充分히檢討하야서 가장有効한藥劑를選定함이 治病의要訣이다

本社의製劑는歐米는勿論、日本醫療界에서稱用한政府制定日本藥局方治肺藥과 多數의高貴藥의配劑에依하야 自然히機能을旺盛하게하고모—든症狀을輕快케한바 左와如히綜合製劑인것을玆에公開함。

백원진정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이잇고 조선총독부허가제이외다。)

別製治肺劑 (五月調査의時價一十日의分量)

- 結核治療劑 五種 (一種十八圓 一種十四圓 一種八圓 一種五圓 一種二圓)
- ホルモン劑(호루몬) 二種 (一種千六百圓 一種千二百圓)
- 健胃整腸劑 四種 (一種三圓 一種二圓五十錢 一種一圓 一種七十錢)
-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 食欲促進劑 二種 (一種二百六十圓 一種五圓)
- 滋養强壯劑 一種 五十二圓
- 消化劑 二種 (一種三十二圓 一種十八圓)
- 酵母劑(헤—베) 一種 七圓
- 結核解熱劑 二種 (一種二百三十圓 一種三十三圓)
- 鎭咳祛痰劑 三種 (一種八百圓 一種十一圓 一種九圓)

이상스물세가지의 배합제로、종합적의치효능을 구비한 처방에의하야、출원허가된공인別製治肺劑이다。

特製治肺劑 (五月調査의時價一十日의分量)

- 結核治療劑 三種 (一種十八圓 一種十四圓 一種二圓)
- ホルモン劑(호루몬) 二種 (一種千六百圓 一種千二百圓)
- 健胃整腸劑 五種 (一種二十圓 一種五圓 一種四圓五十錢 一種一圓五十錢 一種七十錢)
- 消化劑 二種 (一種三十二圓 一種十八圓)
- 酵母劑(헤—베) 一種 七圓
- 鎭咳祛痰劑 一種 九圓
- 結核解熱劑 一種 三十三圓
- 食欲促進劑 二種 (一種二百六十圓 一種十五圓)

以上 열일곱가지의 배합제로、종합적의치효능을 구비하처방에의하야、출원허가제의공인特製治肺劑이다。

만약 우의중언에 틀임이 잇슴을 발견할때에는 분석료백원을진정함。

本社의治肺劑와 血液素의併用에依하야、全快者를新聞에 發表한것이임의數千人에達한다。即藥効를證據세운것은무엇보다도全快者數에잇다。그多數한 全快者發表에모다 住所氏名을明確하게하고、全快後、健康하게된 寫眞까지 揭載한것은 本社獨自的자랑인 藥効와攝生의結果임을 反映한 實際的證據이다 (新聞廣告에서읽어보는全快文은、住所氏名을明記한것、驛名과氏名만으로捏造한것가리도보인다、그러나全快文이면 葉書一枚일지라도自己가投函하야서그것을全快文으로取扱하야揭載하면누구나되는것이다。)

이病은다른病과달너서、病苦에煩惘함이오래됨으로 自然町村內에까지 알여지고、또全快하야 健康體가된것도 알게된다。

町村에는 駐在所가잇고 事務所가잇슴으로 僞造가잇으면 대번에問題가일어난다。本社의發表한 全快者의 그告白文도眞實한 喜悅에넘처서同病者을救濟코자하는힘잇는 웨침이다。더구나그全快는 研究室에서되는몰못도나토끼의 全快와달너서 사람의 全快임으로이것은 適當한攝生과 藥劑의有効한것을反證하는것이다。

現今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張한廣告는 絕對로不許함으로이런 高貴藥配劑公開는秋毫라도 虛僞가안이다。

病患者는 本劑로써 一日이라도빨이健康이回復되기를바란다。그리고本社는患者의秘密을絕對로嚴守함。

別製治肺劑 用德入	十日分 十五圓 / 十六日分 二十八圓 / 四十日分 六十五圓	
特製治肺劑 用德入	十日分 十圓 / 十六日分 十九圓 / 四十日分 四十五圓	

▽주치효능△ ◉부족증◉폐결핵◉폐첨카타르◉늑막염◉폐염◉폐문◉결핵성복막염……

最近発表의全治者・全治者発表는藥効의確證

肺病으로入院까지하엿더니 有田도라구란靈藥으로 難病이쉽게나섯다

岐阜縣大野郡大名田町石瀬二九六 全治者 中野さき

中野さき

엇듯감기에 걸인것이원인으로 어전에 륵막염으로 고생하가슴 근처가압흐기시작하야、힘업는기침이 날때마다 가슴이괴롭고、도밧이아조 업섯습니다。 날마다여 위여가는 나의모양을 보고 대단걱정하고계신부모를 따라깃차운 병원에 가서의사말대로입원까지하엿습니다。 그리하야반년으로잠도못자고부모들은간병을 하여주시나병은조금도안낫슴으로、마음을 진정치못하고고민하고잇슬때 엇던날아부님이귀중하게조히에밧친약을 내노으시며

「기운을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야서지금까지가만히잇섯스나、실상은 네병이폐병(肺病)이엿섯다。오날은하라버지말슴대로 저유명한아리다도락구치폐제(有田ドラッグ治肺劑)를사왓다。 이약으로만은 사람이완치되엿다하니、다른사람이나은약으로네가안나을리치가업다」 하셧습니다。

고히잇거말슴한으로나도 아부님말슴대로 섭생을잘하고 병원약을먹으면서 아리다특제치폐제(有田特製治肺劑)와 혈액소(血液素)를 복용하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랫더니 엇전일입닛가 그러케안내리든열도곳내리기시작하고、기침도 가슴압흔것도덜하여짐으로 기분도조코、식욕도점점나서 원기도나왓습니다。 부모는말할것도업고、의사들도경과가『대단조타』고깁버하엿습니다。그리하야 四주간분만 련복하니퇴원하게되고、그후에는회복기의 절제를잇지안코 섭생법을실행하야아조전치되엿습니다。 여위고창백하엿던몸은 혈색도조코、살이저서 뚱뚱하여지며、난병 폐결핵에서 살어난 깁븜과감사를늘이면서지금부모에게 은혜를갑흘가하고힘자라는 대로집안일을보고잇습니다。

肺病과 肋膜炎은 初期中이라면 問題업시完治

名古屋市東區鍋屋上野町三九 全治者 縣三代吉 父 縣元三郎

우리들에게 금자탑이보다도 더귀중한 맛아들이오깃지(三代吉)는 자반느러서라도어서 그자란것을고 대고대하고잇서더니 게우 작년봄에 소화교를맛치고 빨이공업견습공으로써 모청공소에들어갓스나 비상시인관게인지 대단밤버서 밤마다 남어일을 하게되야 처음에는 젊은애들이라고무리하게일을하고잇서더니 어느날도 라오길에비를맛나서흠북저젓든것이원인으로써 열이나고三日간은 머리도못들든 상태로써회사도결근하엿습니다 그런후로엇 전지머리가무겁고일이하기가실흠으로 자연히결근도자조하게되얏든바 몸이넘우심히쇠약함으로 시내병원에서 진찰을바덧더니 만성륵막염이란진단을밧고놀내엿습니다。

縣三代吉

의사의친절 한치료에 안심하면서 어제든十五세된 오늘까지 정미주일을통한 얼마동안이잇서서는안되겟다 고각정이 일어섯습니다 그러때 천행으로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약이매 단못타고 자조광고를 맛춤 메여보고싶흔마음이나서 명고옥시영정칠정목(名古屋市榮町七丁目)의 아리다도락구 전매소(有田ドラッグ專賣所)에가서 특제치폐제(特製治肺劑)와혈액소(血液素)를 사왓습니다。

어떤아해를 병업이로 入日分의약을 十六日간에는 아이이고 말슴한대로 절제를직히면서 무럭무럭원기가 나고 밥맛도나서 밥도만히 먹게되야 날마다쾌하게되며 생기를회복하고 계속하야五주일간 약을먹엇더니 매으로 의사도『전쾌되얏다』고한말을 듯게되얏습니다

이것도다귀 소의 폐병약(肺病藥)의 신효와친절한지도로된결과라고깁히감사하며동병자여러분께에들의 체험담을알여서 이리케잘듯는약이 세상에잇다고알입니다。

꼭回春될것을 自信하여라

自暴自棄는大敵

鳥取縣東伯郡山守村大字堀三一五六 全治者 平岩正一

平岩正一

원래건장하야농업에 종사하는자인대 경한감긔로부터 폐염(肺炎)까지 되얏슴으로 깜작놀내여서 정성껏치료에 로력하여던결과、겨우좃나엇다고깁버한것도 순간적일이고 열흘뒤에는 다시악화하야서 습성륵막염(濕性肋膜炎) 이되얏습니다。 다른사람이 친절히알여준신약후소(黑燒)、자양제、한약등을구하야서 여러가지로 먹어보왓스나、조금도효력안나고、열이계속하야 三十도로오르고 내렷습니다。조금마옹지기면대단이 기침이나오는데는 견될수업서、자포자기의 기분까지나왓습니다。 엇던날아무생각업시 펴본 신문에서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의 광고를보고十圓버리는셈치고、안해를창길정(倉吉町) 아리다도락구전매소(有田ドラッグ專賣所)에 보내여특제치폐제(特製治肺劑) 와혈액소(血液素)를사다가、전매소주임이갈으켜준 섭생법을직히면서 먹엇더니 이상하게도 열도내리고 기침도적게나와서 몸은심히편하게되야、다시四주간분을 련복하야 전치되엿습니다 다시살어나게되깁붐에 집안가족이 대단 조와라고 하며、병후의 섭생에 힘을써서 지금에는 몬저와갓치 들에 나가서 정력을 다하야 일하게되얏습니다 이병으로 욕을보신분은 꼭 주저말고 아리다도락구(有田ドラッグ)를 차저가시도록 권합니다。

004245

백고람먹으면 사백고람피가된다

有田혈액소 (一名 오—소—루— 점가사원)

몸이쇠약한사람 허약한사람이보통자양물로 제일마히 먹는것이 우유、닭고기、물고기、닭알、곰국등이다 이따위는흔한자양물이야 자양물이지마는어떤것이나 위장의소화작용을 지나지아니하면 자양이 되지는 못하는것이다。 그러데、쇠약한자나 허약한자의 위장은、소화작용이약해서、이러한자양물을 먹으면 반대로위장을해하는 결과가되는것이다。그러므로 대학병원에서도 입원환자에게애해서、류동식의자양물을 먹이거나、혹은식후에소화약을먹이는것이다。그러나이것도 자양료법으로는、아직완전하다고는할수업스므로 우리상회는이것을고심연구하야 有田血液素(아리다 혈액소)를창제한것이다 이것의특색은 아모리위장이약한사람이라도、위장의소화작용을밧지안코 먹으면 곳위속에서흡수되어서 그것이피가되어、전신의 자양이되는것이다。

有田血液素(아리다혈액소)를먹으면、다음과가튼 현저한효력이나는것이다。

(一) 얼골이해쓱한사람은혈색이조하지는것
(二) 체중이증가하는것
(三) 혈액이증가하는고로써정력을더하는것
(四) 냉증이잇는분은몸에 온기가더하지는것

그외에병후산후의일반쇠약자、본래허약자、운동부족、폐병、늑막염、심장병등의빈혈환자에게는업지못할보혈자양의혈액소이다。 또이有田血液素(아리다혈액소)는보혈제로유효한주성분이얼마나만히들어잇는가함에대하야는 내무성위생시험소분석표를보아주시기바라오며또가짜물건을파는자가 잇사오니 有田音松鑑製라는문자에주의하십시오。

報告

大阪市南區末吉橋通三丁目五番地
依賴者 有田音松
第壹四九號
一 オーソール 壹種
(ヘモグロビンノ定量)
右ノ名稱ヲ附シ當所ニ提出シタル品ハ暗赤色ノ乾燥セル粉末ナリ之ガ分析ヲ遂グルニ本品百分中ニ檢出セル(ヘモグロビン)ノ含量ハ左ノ如シ
(ヘモグロビン)(酸化ヘモグロビントシテ) 八五・五
大正二年四月二十九日
內務省大阪衛生試驗所
所長衛生試驗所技師 平山松治
主任衛生試驗所技師 森 茂

無代進呈

必治療養書『新生』은患者救濟를爲하야 本社結核研究所의 醫學博士數名이責任을지고 記述한必治療養書인바希望하시는분에게 無料進呈하오니 葉書로申込하시라。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 振替京城二三一五七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滿鮮発売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도락구 電話本局二三六三 振替京城二三一五七

有田도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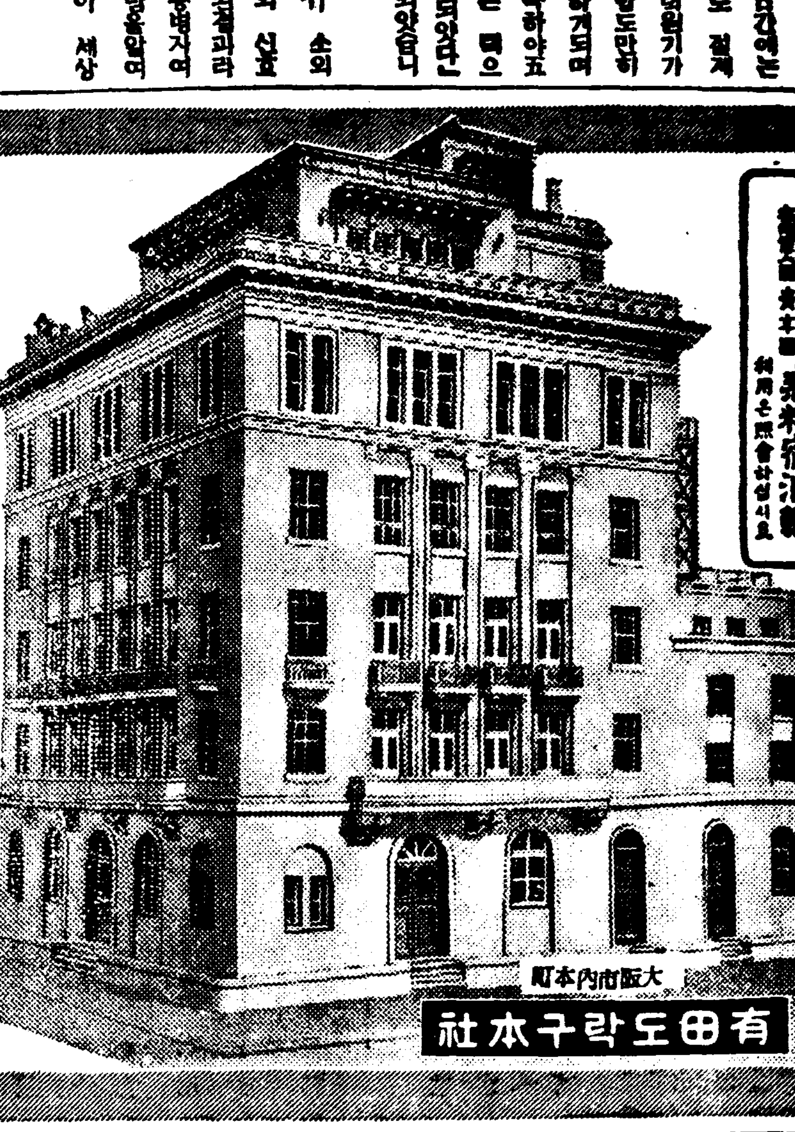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도락구
黃金町四 有田도락구
竜山練兵町 有田도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도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도락구
大田栄町一 有田도락구
群山駅前通 有田도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도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木浦栄町二 有田도락구
大邱弓町 有田도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도락구
麗水港 有田도락구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도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도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新義州桜町 有田도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도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安東県四番三 有田도락구
奉天驛前 有田도락구
撫順東六条 有田도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도락구
四平街益盛路 有田도락구
新京東一条通 有田도락구
哈尔賓傳家甸 有田도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도락구

本舖 大阪內本町 有田音松

책임제약이므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슴니다 우에적은有田도락구전매소에가사십시오

위조약을파는 상점이잇슴니다 약갑에 大阪內本町 有田도락구 有田音松鑑製 위운자잇는것을 사십시요

◀完備를자랑하는▶
日本에처음되는新式의理想的衛生製藥工場
大阪赤十字病院前通 有田도락구製藥工場



有田音松社會事業 無料宿泊館

大阪市內本町
有田도락구本社

長興郡下에 大火災
全洞十餘戶가 全滅
어른들은 모다 들에 나간 사이에 小兒男妹가 無慘燒死

【長興】 지난 이일 오전 십일시경에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長興郡有治面鳳德里) 김현의(金鉉義)의 집에서 불이 이러나서 맛침 맹렬히 부는 바람에 승세하야 그 동리 십여호되는 부락을 전소식히고 동일오후 삼시경에 겨우 진화되엿는데 자세한 내용을 드른즉 부락 남자들은 들에 나가고 녀자들은 산채를 캐려 산으로 가고 집에는 아이들이 변소 근처에서 성냥을 가지고 장난하다가 실화된 모양이라 하며 맹렬히 부는 바람에 사람손도 대지 못하고 타기를 시작하야 부락 전 십이호를 태우고 집에서 놀고 잇던 아이 김현의 장녀(ㅅ)와 차남(ㅇ) 두 남매는 무참히 타죽고 화상을 당한 사람이 딸 명이며 가축 십이두도 갓치 타서 죽엇는데 총손해액은 가옥 가구와 분량 식량 등 일천팔백여원가량이라 하며 의식주를 다 태운 부락민들은 먹고 입고 살 길이 막연하다는바 그곳 면직원 주재소 직원 학교직원들이 협력하야 상당 금품을 식량 등 우선 응급구호 하엿스나 이 압흐로 큰 문제이라고 하며 군당국에서도 구제책을 강구중이라고 한다

同胞兒童敎育 兩功勞者表彰

【神戶】 이역 신호에서 향상 우리 자녀들을 위하야 삼년동안 하로도 빠지 안코 헌신적 교편을 잡아 다대한 공적을 남긴 교유가 조석윤(曺錫允) 김부수(金富守)(?) 량씨의 공로를 표창하기 위하야 재신조선인 유지로 조직된 신호우리협친회(神戶우리協親會)에서는 지난 삼일 오후 칠시 신약통 일정목(新若通一丁目) 협친회 회관내에서 제십칠회 정긔총회를 거행하게 되엿는데 회원 백여명과 유지 오십여명 렬석으로 표창식을 맛치고 이어 장치수(張致洙)씨 사회하에 식을 성대히 마치엿는데 사실은 소화 원년부터 재신조선인 무산아동들을 위하야 비록 야학이나마 협친회에서 경영하게 되엿는데 전긔 조석윤, 김부수 량씨의 열성으로 삼년을 하로가티 우리자녀들과 싸워온 그 공로는 학부형들은 물론 일반인사는 우르러 칭송하기를 마지 안는다 하며 따라 김윤태(金潤泰)씨의 공로도 칭송 안흘 수 업다고

採菜筐·滿山野!
絶糧者千餘戶에 浮黃病續出
災地安溪一帶의 慘狀

【安溪】 경북 의성군 안계 일대(多仁, 新平, 丹北, 丹密, 龜川, 比安)에서는 지난해 미증유의 대수재로 춘궁이 극도에 달한 요지음에 와서는 식량이 떠러진 농호수가 천여호에 달하여 부황병(浮黃病)자가 속출하고 잇다는데 그래도 의착할 생명을 잇겟다고 풋나물 캐주리가 산야를 덥피고 잇는 참상이라 한다

有志의 努力으로 東平簡易校開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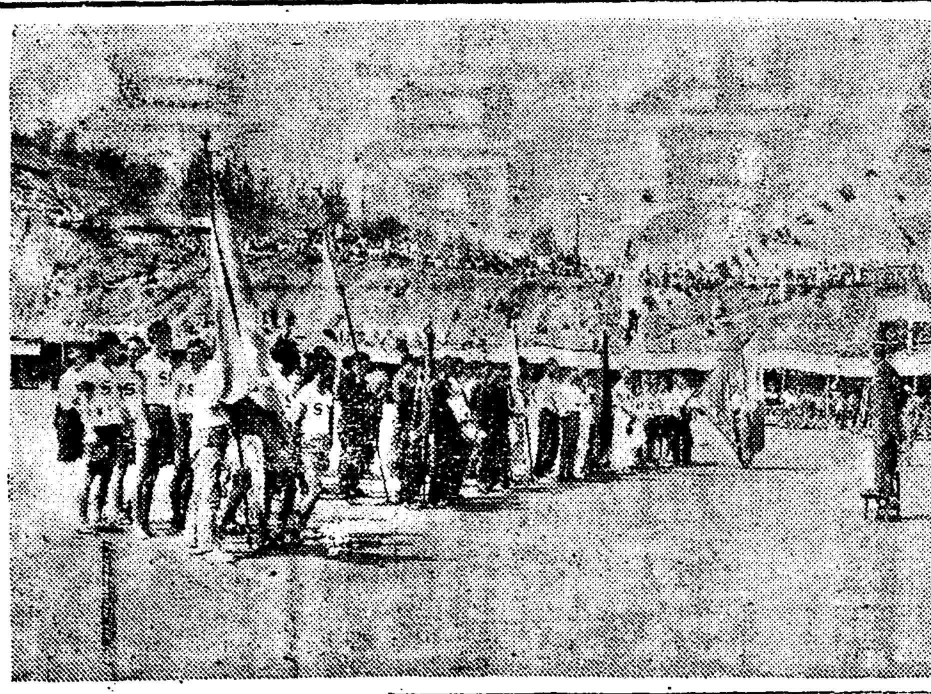
【安城】 경긔도 안성군 삼죽면 동평리(安城郡三竹面東平里) 외 삼부락은 봉덕보통학교와 거리가 머러 학령아동의 취학이 곤난하야 유감이든바 당지 유지제씨의 열성으로 다년간 강습소를 설치하고 아동을 교육하든바 얼마전부터 긔본금을 모집하야 간이학교(簡易學校)를 설립하고 지난 사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엿는데 신축교사는 오는 이십일에 락성되리라 한다

本報讀者에게 市街地圖進呈

【永登浦】 다년 숙망하든 영등포시가도 간선도로의 발표를 긔회로 조선일보 영등포지국에서는 약진도정에 잇는 대영등포의 발전촉진상 조고만치라도 사회적으로 긔여되는 바 잇기를 바래서 다대한 비용을 던지여 일쭉이 석판사도쇄(石版四度刷) 우미한 신계획에 의한 시가지 간선도로망도를 주문중이든바 사일 낙부(?)되엿슴으로 일각을 지체치 안코 즉시 애독자 전부에게 무료히 무대진정한 외에 읍내 각관공서 학교 회사 등 삼십여 단체에 적당히 증정하엿는대 때마침 대영등포 건설공작의 초긔에 당면하야 한장식은 반드시 비치하여 두어야 할 중보인 만큼 각방면에서 열광적 환영을 밧고 잇다하며 잔여한 부수는 근소한 관계로 독자 이외의 분에 대하야는 선착 희망자에 한하야 일매 오십전의 실비로 나누어드리기로 되엿다 한다

邑民의 保健衛生上 廢川整理가 急務
當局의 無誠意를 非難

【沙里院】 사리원 운하공사(沙里院運河工事)가 준공됨으로 인하야 읍내시가를 관통(貫通)하엿든 네개의 하천(河川)이 무용하게 되여 현재 사리원 시가 건설에 이 폐하천(廢河川) 매립(埋立) 정리가 급한 문제의 하나인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폐하천에 대한 처분을 게을니하야 시가가 정연하지 못할 뿐 안이라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 불결한 부패물과 우마(牛馬)의 분뇨(糞尿) 등으로 그 부근은 악취가 심할 뿐 안이라 파리와 버레가 성하야 창승(蒼蠅)을 방지할 방법이 업서 크게 두통거리라는데 시가 중심을 관통한 폐하천이 상당한 면적을 점령하엿스니 만치 시민의 위생에 중대한 문제라 하야 속히 폐하천의 정리를 요망할 뿐더러 위선 경찰당국의 여긔에 대한 대책을 읍민이 갈망한다고 한다



◇寫眞…鎭南浦市民春期大運動會入場式光景

春色의 古都차저 平壤에 旅客洪水
四月中驛吞吐人員十六萬餘人
收入은 十萬四千餘圓

【平壤】 사월은 려행의 봉이런가 평양역에는 금년 사월 이래 려행객과 관광객의 승강이 격증하여 할수업시 평철당국에서는 림시렬차를 증설하는 성황을 일우어 려객을 수용하고 잇다 이제 사월중 평양역의 강차(降車) 인원은 팔만이천이백삼십팔인 승차(乘車)인원은 팔만삼천륙백삼십삼인으로 작년에 비하면 강차인원은 일만삼천인 승차인원은 일만팔천삼백사십칠인의 증가이다 려객수입은 작년의 팔만일천이백오십오원칠십칠전보다 늘어 십만사천오백일원이십팔전에 달햇다 이래서 평양역에 사월한달동안에 팔린 려객 총수는 십륙만 흘천 이인으로 그중에는 단체(團體) 백삼십사단체의 실사만오천인이 거의 전부를 점령하고 잇다 한다

禮山郡大述面所 位置爭奪戰熾烈

【禮山】 충남 례산군 대술면(禮山郡大述面) 당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면사무소 현위치가 교통이 불편하다 하야 위치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이전신축키로 하고 동면 산정리에 긔지까지 화천(花川) 외 오개리 주민이 긔부하엿다는데 이를 알지한 현재면사무소 소재지 주민들은 아연긴장하야 이전반대운동을 개시하고 역시 긔지까지 긔부하야 대항하는 바 결국 귀결이 어데까지든지 목적을 관철코저 관계당국에 진정하리라고 한다

咸興女子高普校 四日附로 遂認可

【咸興】 함남부민의 다년간 요망하던 함흥녀자고보는 그동안 긔성회에서 의연금 수집에 로력하여 민간보조금 팔만오천원을 납부완료하엿던바 드듸여 사일부로 인가지령이 잇섯다 한다

本報讀者優待

【岐陽】 본보 기양지국에서는 본사 삼대경사를 자축하기 위하야 병원과 사진관(病院及寫眞館)에 교섭하야 본보 독자에 한하야는 특히 우대키로 하야 시내 기양의원장 장치용(岐陽醫院長張治用)씨와 교섭하야 본월 십일부터 일개월간은 진찰무료, 약가는 반할인으로 제공케 되엿다 한다

甲寺佛誕記念

【公州】 석가불탄생긔념으로 오는 음력 사월 팔일밤에 충남 사찰 갑사(甲寺)의 불교청년회에서는 제반 긔념식을 성대히 거행코저 준비중인데 등불(燈火) 일천개를 그 절동구에 비치하리라는바 근래 처음 보는 관등으로 대성황을 일우리라고 한다

方魚津의 메이데이
電柱等에 傳單을 貼付하야
十餘青年을 檢擧取調

【蔚山】 울산군 방어진에는 지난 사일 밤에 시내 각 전주(電柱)에 내용이 과격한 메이데이의 포어를 쓴 전단(傳單)을 부처 오일 아침 전시를 소연케 하더니 경찰은 활동을 개시하야 각처에서 가택수색과 동시에 방어진(方魚津) 일산진(日山津) 등의 청년 십인을 검거하야 울산경찰서로 압송하고 방금 취조중이라는데 일반은 사건의 진전을 매우 주목하고 잇다 한다

京城서온青年 大同江에 投身

【平壤】 경성에서 금수강산 평양에 자살려행을 와서 맑게 흐르는 대동강물에 몸을 던저 자살을 감행한 청년이 잇다 오일오후 륙시 사십오분경 부내 신창리(新倉里) 대성관(大成館) 건너편 강에서 뽀ー트 타든 청년이 물에 뛰여드러 자살을 하엿는바 뽀ー트에 버서논 양복 옷저고리에 리력서가 잇서 경성부 [illegible] 장기영(張基英)(?)(二三)으로 판명되엿는데 그는 숙(淑)(?)[illegible] 어린 녀자에게 죽엄으로서 [illegible] 유서와 형에게 한 유촉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뜻의 유서 두통이 잇는 외에 현금 오원 사십이전과 손목시계 남자용 금테 기(?) 바지 등이 잇섯는데 시체는 아즉 발견하지 못하엿다 한다

境界線의 慘劇!
밧도랑境界싸홈에 발길로 차서
六十老人을 絕腸致死

【安州】 지난 일일 오후 여섯시반경에 안주읍 미상리(米上里)에서 읍내 남천리(南川里) 김지택(金智鐸)(?)이가 자긔 밧 경계선(界境線)을 옴기기 위하야 경계선을 넘어서 도랑을 파는 것을 윤찬국(尹贊國)(?)이가 보고 자긔 밧도랑이 떨리어 들어가니 그를 고만 두라고 하여 설왕설래에 언쟁이 되자 이에 분개한 김은 피살자 윤찬국의 멱살을 잡고 무수히 발로 차서 혼수상태에 잇는 것을 본 아들 윤보석(尹寶石)(?)이가 급히 구호를 하엿다는데 그시부터 토혈과 하혈을 하여 드듸여 오월 사일 오후 일곱시에 사망하엿다는바 잇튼날인 오일 오전에 평양지방법원 안주지청 소야검사(小野檢事)와 검사법수임이 현장을 림검한 후 지공의(池公醫)가 해부한 결과 절장(絕腸)이 된 것으로 가해자 김지택은 평양 모병원에 가 잇는 것을 포박하야 안주로 압래하야 목하 취조중이라 한다

【?】 전북 ○○군 귀림면 동북간이학교(龜林面東北簡易學校)는 그간 관계당국과 면민 유지제씨의 부단한 노력으로 개교준비에 힘써오든바 지난 사월 이십오일부터 개학케 되얏는데 제일회 입학생을 [illegible] 수용중이라 하며 교원은 이동박(李東朴二)(?)씨가 모든 정력을 다하여 활동중이라는데 오는 륙월중에는 약 일천원의 경비로써 교사를 신축할 예정이라 한다.

竹山市日變更 家畜市場도 開設

【竹山】 경긔도 죽산시장(竹山市場)은 (市日)이 오일 일일과 륙일이든 것을 오일 십일로 변경하야 오는 오월 사일부터 시행하리라는바 가축시장도 이날부터 개설되는데 찬조금이 답지하야 일천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男負女戴北滿行
빼대고 잇서도 할수 업섯든지
永同驛은 離鄕者로 大混雜

【永同】 영동지방은 흉년에 들어 절량자(絶糧者)가 천인구의 사활 이상이라 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요사이 와서는 그야말로 엇지할 도리가 업섯든지 남부녀대하야 북만주를 향하는 리향자가 하로에도 삼사십명에 달한다고 하는바 이로 인하야 영동역은 련일 대혼잡을 이루고 잇다

烈女春香祭日 四月八日로 變更

【南原】 금강산(金剛山)을 보기 전에 세계 산수를 이야기 말라는 말과 가티 춘향전(春香傳)을 보기 전에는 소설 이야기를 하지 말어야 할 줄 안다 몽룡(夢龍)과 춘향(春香)이는 간곳 업서도 해가 갈수록 녹음에 욱어진 광한루(廣寒樓)와 그에 따른 배경은 녯정을 더욱 뭇기게 한다 오월단오이면 남원은 물론 전선각지에 조기생들이 춘향제사를 모시려와서 각종의 여흥을 수삼일식 연출하야 인파만경을 이우는데 금년부터는 춘향의 제일을 생일인 사월초파일로 변경하기로 되여 각종 여흥 준비에 분망하다는바 일반은 특히 변경된 날자에 주의하야 만흔 래관이 잇기를 바란다 하며 각종 여흥 안내는 다음과 갓다는데 특히 각희대회만은 대대적으로 하리라 한다

一、名唱大會 ― 陰四月八、九兩日

日割

一、市民運動 ― 陰四月十日

一、脚戱大會 ― 陰四月六日부터 二十日까지

一、野球庭球 ― 陰四月九日

兒童愛護데이 全郡母姊會開催

【永興】 오월일일부터 일주일간을 본사를 중하야 루차 보도한 바이어니와 영흥군(永興郡)에서도 미래의 역군인 유아의 보호를 위한 삐라와 포스터를 각 사회단체와 찰도당국에 교섭하야 배포첨부(貼付)하야 일반에게 그의 철저적 실현을 실시하는 반면에 각면 공동의 모자회(母姊會)를 개최하고 유유아(乳幼兒)의 보건(保健)과 실지양성의 철저를 긔하리라고 한다

農耕迫頭인 此際
小作爭議依然頻發
咸興法院엔 調停申請殺到로
今年累計百四十餘件

【咸興】 함남도의 소작조정은 긔경긔를 당하여 더욱 격증하야 사월에도 륙건이나 함흥법원에 조정신청이 살도하야 벌서 금년 두게 일백사십일건이나 되엿스며 작년의 단삼건에 비하면 사십륙배의 대격증이라 한다

小作爭議三百突破
比昨年同期十倍의 激增으로
釜山等七個地方統計만 如此

【釜山】 경상남도내에는 금년에 들어 소작쟁의가 격증하는 중인데 금년 일월 이후 사월말까지 삼백오십건의 조정신청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되엿다는바 이를 작년 건수에 비하면 약 십배의 격증으로 매일 평균 이십건 이상입으로 법원의 수부계가 이로 인하야 분망을 극하고 잇다 그러면 이것이 동법원 관할인 통영(統營), 울산(蔚山), 밀양(密陽), 창원(昌原), 창녕(昌寧), 김해(金海), 부산(釜山), 동래(東萊) 등의 각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도내 전부를 총합하면 엄청난 수자에 달하리라 한다

咸興商業會主催 市民大運動會
오는 六月一日에

【咸興】 함흥상업회(咸興商業會) 주최의 함흥시민대운동회는 오는 륙월일일 함흥녀공보교 정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여 동회에서는 방금 만반의 준비에 분망중인데 운동을 할 긔회를 전연 엇지 못하든 시민들의 긔대가 극히 크며 시민들은 맹렬연습중으로 당일의 성황이 예상된다고 한다

鎭興公立普校 學父兄會定總

【鎭興】 함남 영흥군 진흥공립보통학교(鎭興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사일 오후 한시부터 동교 강당에서 진흥공보 학부형회(學父兄會) 제십일회 정긔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가튼 사항을 토의하고 오후 여섯시경에 무사히 폐회하엿다고 한다

一、計議案 敎育研究會開催에 關한件

一、校舍增築에 關한件

一、上級生修學旅行費補助의件

一、中途編入生義捐에 關한件

一、役員選擧의件

委員長 尹大憲 副委員長 佐藤信太郎 書記 尹承郁 庶務部 崔炳島 黃光福 金明璉 財務部 金錫鍊 尹明傑 朴濟憲 金明傑 社交部 金承烈 金基濟 裴明洽 嚴茂相

咸一釀酒場美擧

【吉州】 함북 길주읍내에 잇는 함일양조장(咸一釀酒場)에서는 지난 오월 사일 긔주주총회에서 날로 궁핍하여 가는 세농민을 구제하기 위하야 일금 백원을 회사하엿스며 구제방법 실행은 길성면(吉城面)에 일임하엿다는데 일반은 그 미거에 칭송이 자자하다 한다

三年間을 繼續하야 窮民四十戶救濟
當世活佛鄭氏의 美擧

【永同】 영동군 룡화면 범화리(龍化面範華里) 정석권(鄭錫權)씨는 금년 이십오세의 청년자선가로 금년까지 년삼년 련접한 가뭄으로 궁민 사십호를 종곡(種穀)과 백미(白米)를 지급하야 구제하엿다는데 전긔 정씨의 선친은 원래 자선가로 일홈이 놉흔 이엿다고 한다

풋나물도 採盡된 咸安災民生活相

【咸安】 재민구제공사라는 미명하에 방금 함안수리조합 제방공사를 진행중에 잇지마는 하로 오십전 내지 륙십전의 임금으로써 식가 삼십오전을 주고나면 겨우 이십여전밧게 남지 안는다 이로써 그들 가족을 구제하기는 고사하고 우천이 되거나 긔타 질병으로 한달에 맷칠만 빠지게 되면 로동자신의 밥갑까지 문제가 되는 그들 가족은 풋나물을 캐여다가 먹엇스나 그조차 인제와서는 끈어지고 말엇슴으로 몃십전이라도 손에 들어가면 갑시 조금 헐한 일본내지라맥(內地裸麥)을 사가기 때문에 이쌀보리가 시장에 다량으로 진출되여 호경긔를 보고 잇다 한다

大田邑順天醫院長 寡婦에게 被訴
罪名은 暴行監禁等

【大田】 대전읍 본정 이정목에 거주하며 대구경북상회(米穀取引所)와 거래를 하고 잇든 과부 김인순(金仁順)(?)은 당지 본정 이정목 순천의원 원장 김상용(金尙用)을 상대로 상해, 모욕, 폭행, 감금(傷害, 侮辱, 暴行, 監禁) 등의 죄명으로 대전경찰서에 고소를 제긔한 사건이 잇다 고소의 내용은 전긔 김상용은 수차나 김인순에게 와서 미두를 하여오다가 지난 사월 십이일에는 백원 증금으로 외상미두를 하다가 손을 당하고 그 잇튼날 대금을 바드려오라 하기에 갓섯더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달 이십구일까지 이르렀든데 김상용은 별안간 태도가 돌변하면서 돈은 무슨 돈을 바드려왓느냐고 무례한 언사를 하며 병원 대합실까지 강제로 끌고가서 의자로 구타하며 가진 폭행을 한 후 암실로 끌고드러가 문을 걸고 자기 아들과 협력 구타함으로 매에 못이긴 김인순은 간신히 잠긴 문을 박차고 자기 집으로 도라와 신음중이라는 것으로 당지 공의에게 십일간 진단서를 첨부하야 전긔 죄명으로 고소를 제긔한 것이라 한다

普賢寺浴佛祭

【寧邊】 조선의 사대명산에 하나로 평북 녕변(寧邊)에 잇는 묘향산(妙香山)은 해마다 춘긔와 추긔에 각지에서 탐승객이 련락부절할 뿐 아니라 주지하는 바어니와 산중에는 유명한 거찰(巨刹)인 대본산 보현사(大本山普賢寺)가 잇서 석존강탄제일(釋尊降誕祭日)인 음력 사월 팔일에는 원근 각지에서 참배자가 오륙천명에 달하는데 금년에는 더욱이 만포선(滿浦線)이 개통되고 묘향산역(妙香山驛)이 생기게 되여 교통이 편함을 따라 참배자는 작년보다 배이상되리라고 추측되는데 벌서부터 각지에는 참배자와 음식점 여관업자들은 운집하야 바락크 건축에 분망중이며 원근 각역에서는 일반 참배자에게 긔차임이 할인으로 왕복권도 발매중이라 한다

◇掃槍觀光團…本社鎭興分局長 李南○(?)氏引率下에 五日本社來訪員一團

二日동안에 一胎三兒分娩

【禮山】 동물에게는 흔이 잇는 일이지만 사람이 한번에 어린아이 삼인을 나앗다 하면 누구든지 거짓말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몸에서 삼일 동안을 두고 어린아이 셋을 나아서 근동리에 이약이거리가 되는 사실이 예산지방에 발생되엿다 ― 주인공은 례산군 오가면 오촌리(五村里)(?) 장건호(張建鎬)(?)의 처 홍씨로서 지난 사월 이십구일에 이르러 산고가 잇슴으로 준비하고 잇든 중 옥동자를 출생하엿슴으로 그 가족 전부가 희색이 만면하든 중 의외 삼십일에 이르러 산모가 매우 고통함으로 예산읍 해동의원 의사를 초청하여다 보이는데 또 산고가 잇다 하여 수시간후에 어린아이를 출생하야 이틀동안에 일남이녀(一男二女)를 출산하엿는데 지금까지는 잘 자란다고 한다

棉作指導員暴行
老人을 致傷毆打
頻頻한 指導員의 脫線行動에
一般面民의 怨聲高調

【蔚山】 경남 울산군 농소면 송정리(蔚山郡農所面松亭里)에서는 지난달 이십사일 면작지도원들이 자긔들의 식대로 잘하지 아니하엿다는 리유로 륙십로인 [illegible] 하고 그외에도 무리한 폭행이 허다하므로 일반 면민은 불평이 자자하다는바 그 사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타를 당한 사람은 동리 심모(沈某)(?)와 장모(張某)(?)에게 소가 색기를 나흔 관계로 목화 심으는 것을 상위한간 연긔하여 달라하고 [illegible] 그의 보리밧과 참외 노은 것을 함부로 짓밟으며 지팡이와 발로서 무수히 구타하야 일주일가량이나 치료를 요할 상해를 주엇다는바 그 이튼날에는 십이명의 지도원이 일시에 출장하야 전긔 김씨의 집을 훗은 축우생사 [illegible] 송지채벌(松枝採伐) 등의 혐의로 마음대로 수색하야 위협하며 소구이를 파괴하야 굶은 돌과 함께 모자리에 집어너어 그를 버리게 하엿스며 이웃 박모(朴某)의 집과 리모(李某)의 집에서도 무리한 구타와 폭행을 감행하야 동민의 불평과 비난은 여간지 안타하며 피해자들은 각각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三少年마라손 日順變更

【宣川】 선천읍내 우상순(禹相淳) 로요섭(盧要涉) 안선욱(安善旭) 삼소년이 마라손으로 선천서 부산까지 달릴 계획을 한다함은 긔보한 바와 갓거니와 오월 륙일에 출발하야 십오일에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엿스나 중간도정의 사정에 의하야 하로를 먼저 떠나 하로를 더 느게 도착토록 변경하야 의량해를 바라다고 하며 변경된 일순은 다음과 갓다 한다

五月五日宣川發安州着 六日安州發平壤着 七日平壤發沙里院着 八日沙里院發新幕着 九日新幕發開城着 十日開城發京城着 十一日京城發天安着 十二日天安發太田着 十三日大田發金泉着 十四日金泉發大邱着 十五日大邱發三浪津着 十六日三浪津發釜山着

普校基金完納

【盈德】 경북 영덕군내(盈德郡內)에는 구면중 삼면은 보교가 완성되엿고 창수면(蒼水面)만 완성되지 못하엿든바 적극위원들의 활동으로 현재 춘궁을 당하여 초근목피로 생활하는 면민임에도 불구하고 창수보통학교 긔본금 삼천칠백원을 일개월 기한에 완납하야 인가도 불원간 되리라고 한다

會長 李圭鉉(?) 副會長 李謙浩 委員 李向(?) 南萬鎬 李鈸尙 權泰鎬

長津水電工場서 又復二名이 重傷

【長津】 지난 일일 오후 사시경 장진수로 제이사항에서 긔게공으로 십여년을 종사하든 리원호(李元浩)는 긔게를 고치다가 긔게에 치어 오른편손을 잘나버려 치료 일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엇고 이날 오후 두시경 갈전리 언제공사장(葛田里堰堤工事)에서는 부인로동자(성명부지)(?) 한명이 머리를 다쳐 일주일 이상의 부상을 입엇다고 한다

三萬市民總動할 馬山大運動會
五月廿六日에

【馬山】 마산의 년중행사요 삼만시민의 총동원을 보게 되는 마산시민대운동회는 례년과 가티 대운동준비위원회 주최와 조선, 중앙, 동아 삼지국 후원 아래에 개최하게 되여 지나 삼일 오후 팔시경에 마산정무관(馬山正武館)에서 대운동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각 부서를 분담하야 착착준비를 진행중이라는데 회비는 보통 일인분 오십전이고 자전차(自轉車) 선수와 륙상선수에게는 오십전을 밧게 되엿스며 대회시일급 장소와 회원모집 신청장소는 다음과 갓다 한다

日時 五月二十六日(日曜日)

택시顚覆으로 乘客中輕傷

【鐵原】 지난 오일 오전 열한시 반경에 야유회(野遊會)에 가는 손님을 만재한 철원읍 서곡자동차부(西谷自働車部) 소유 강제이십호(江第二○號) 택시를 운전수 고백봉(高白鳳)(?)이가 운전하야 철원읍 수도수원지를 향하야 질주하든 도중 율리리 독서동(栗梨里讀書洞) 근처 언덕진 곳에서 전복되여 승객 사명의 중경상을 내엿는데 원인에 대하여는 원체 도로가 불편한데다가 정원 이상이 탑승하엿든 관계로 압바퀴가 빠지게 되며 좁은 길에서 떠러저서 전복된 것인데 차체와 운전수는 무사하엿스며 승객은 전부가 부인으로서 못처럼 하로동안이나마 의미잇게 질겨보려든 야유회에 가든 도중에서 그와 가튼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인바 [illegible] 과가 다하며 운전수는 [illegible]에서 취조중이라고 한다

(重傷者) 鐵原邑月下里 方○○(?)女

(輕傷者) 同面同里 李氏(?)女 同面同里 金順貞(未詳)女 同面同里 ○○○(?)女

地方人事

▲金礎恂氏(咸鏡郡馬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咸鏡支局來訪

▲李完求氏(永同產業技手)新任人事次本報永同支局來訪

木浦 全朝鮮男女弓術大會
▲時日 五月十、十一、十二、三日間
▲場所 木浦演武亭
◇主催 木浦演武亭
◇後援 本報木浦支局

水原 畿湖少年野球大會
▲時日 五月十八、十九兩日間
▲場所 水原華城學院運動場
◇主催 水原運動俱樂部
◇後援 朝鮮日報水原俱樂部

孟中里 孟中里脚戱大會
▲時日 五月八、九、十、三日間
▲場所 孟中里驛前
◇主催 孟中里市民一同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支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四平街支局 位置 四平街○町 支局長 朴亨彬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支局을 變更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寧古塔支局 位置 圖寧線寧古塔驛前東大街 支局長 裵大炫

支局長 李 澗(?) 右依願解任

羅津支局 位置 咸北羅津港 支局長 洪 壕 右任支局長

今般本社에서 左記와 如히 分局을 設置하엿사오니 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農城分局 位置 咸鏡線農城驛前 分局長 許斗極

延吉分局 位置 間島延吉市 分局長 鄭斗煥

謹告

龍岩浦支局 總務兼記者 申玉哲 右新任

北鎭支局 顧問 嚴喜安 右新任

滿浦支局 東西面駐在記者 田宗岳 右新任

群仙支局 寫眞班記者 金能河 右新任

茂山支局 延社分局長 羅秉珏 右新任

開城支局 移轉位置 東本町一七五 電話 四一八番

廣豊分局 記者 金在旭 記者 權五亨 寫眞班記者 柳喜(?) 集金員 崔炳道 集金員 白虎基 右解任

淸州支局 記者 朴 亮 右新任

鴻山支局 顧問 閔廷植 右解任

扶餘分局 記者 禹貴弘 記者 千炳萬 右依願解任

裡里支局 記者 洪南順 右新任

新昌支局 寫眞班記者 石 川 右新任